조국강산



6
1994



도 라 지 꽃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6 호(루계 제5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1면 고국의 진달래에 매혹되여
사진 김휘률

표지 4면 광포의 오리떼
사진 리히철

주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105

력사의 고증자



우리 나라의 **김일성**종합대학에는 《로박사》로 불리우는 선생이 있다. 그가 바로 고령에도 력사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고고학전문가 채희국선생이다.

후리후리한 키에 그닥 벗어지지 않은 이마, 나이에 비하여서는 정열에 불타는 억실억실한 눈, 얼핏 보기에도 강기있어보이는 그의 체모에서 사람들이 흔히 표상하게 되는 그런 학자풍을 찾기가 어렵다.

곡괭이나 삽을 들고 고분을 파헤칠 때에는 근면한 농민같기도 하고 력사유적지를 두루 편답하며 불상, 활촉, 부엌세간, 장신구 따위를 찾기에 열중할 때는 골동품수집가 같기도 한 인상…

그가 력사학연구에 몸을 잠근지는 40여년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선생은 고주몽이 날린 화살을 보며 료동반도를 진감시켰던 고구려무사들의 말발굽소리도 들으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가꿔온 선조들과 함께 살아왔다.

21세기 문어구에 들어서는 오늘이지만 줄곧 태고적력사의 시대를 살고있는 사람, 관록있는 고고학자 채희국선생은 어떤 과학적공로를 쌓았기에 명망높은 학자로, 《로박사》로 불리우고있는가.

력사의 진실을 밝히고저

1918년 9월 12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의 한 농가에서는 경사가 났었다.

채씨문중의 종가에서 대를 이어갈 아들이 태여난것이다. 그가 바로 아버지 채부병, 어머니 리예영의 막내로 태여난 채희국이였다.

그런데 그의 성장은 어떠하였는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국적잃은 《고아》로 태여난 그는 4살때 아버지를 잃었고 12살때에는 어머니마저 이 세상을 떠나 2중의 고아로서 설음많은 식민지노예의 쓰라림을 당하게 되였다.

그러나 인정깊고 근면한 삼촌 채기병의 부양으로 10리밖에 있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당시로서 수재들만이 공부한다는 전라북도 리리농림학교에 입학하였다.

《선생님, 어째서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이 동조동근이란 말입니까?》

민족적인 모든것이 무참히 짓밟히고 침탈당하던 일제식민지통치의 어둡던 그 시절, 수업시간에 이런 당돌한 질문으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에 도전해나선 10대의 학생, 한 조선인교원에게서 얻어들은 단군신화며 해모수신화에서 체내에 잠재해있던 민족의식을 자각한 그의 가슴에 세찬 불길이 타올랐던것이다.

건국신화에 슴배여있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제의 《동조동근》설의 허위성을 고발하고싶은 정의감과 불타는 열정이…

그후 일본인교원들의 독소의 눈길을 받으며 리리농림학교를 졸업한 19살 청년 채희국은 력사의 진실을 밝히자면 지식의 탑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학이라도 할 계획밑에 관부련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모진 고생끝에 도꾜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배우던 그는 민족적차별과 학대에 불만을 품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경성제국대학 어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강의에는 그닥 관심을 돌리지 않고 남몰래 조선력사, 특히는 고고학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44년 졸업을 앞두고 그는 학도병에 걸려 전선으로 나가게 되였다. 일제의 해외침략에 한몸바칠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던 그는 도망치고말았다.

하지만 또다시 징용에 걸려 그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철광산에 끌려가 로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헌병들의 감시속에 수수밥을 먹으며 육체적으로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던 채희국은 거기서 8.15해방을 맞이하였다. 함바집에서 풀려난 그는 해방의 기쁨안고 건강회복을 위해 청주에 있는 누이네 집으로 갔다. 거기서 몸을 추세워가지고 중학교 교원을 하던 그는 력사연구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으나 직업을 얻을수 없어 홍익대학 강사로 일했다.

일제대신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땅에서는 온전한 직업도 가질수 없었고 꿈많던 력사학의 연구사업도 진행할수가 없었다.

학창시절 력사의 진실을 밝힐것을 요구했고 학도병을 도피했으며 8.15후에는 민족자주를 주장했다는 것으로 좌익계인물로 지목된 선생은 온전한 일자리 하나 가질수 없었다.

그러나 곡절많은 생활의 세파속에서도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민족적자존심과 불타는 애국심만은 꺾이지 않았으며 력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뜻은 더욱 굳세여져만 갔다.

스승의 손길아래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에 의하여 전쟁이 발발되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자 선생은 광명을 찾아서 북행길에 올랐다. 그때 선생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높뛰게 한것은 민족의 참력사와 유구성을 마음껏 밝힐수 있게 되였다는 기쁨이였고 즐거움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단에서 강의를 하며 과학탐구의 길에 들어선 선생은 거기에 온 심혈을 바쳤다.

그는 일단 유적발굴에 들어서면 딴사람이 되여버리군했다.

사금파리에 불과한 토기유물에서도 수수천년 세월의 락엽속에 묻혀버린 건국초기 우리 민족의 창조적인 생활실상을 투시한만큼 예리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찾아내며 사소한 실머리만 잡으면 한시대의 미궁을 파헤칠 때까지 사색과 탐구를 멈추지 않는 끈질긴 완강성, 그것은 그의 성공탑의 열쇠이기도 하다.

1957년 태성리고분군을 발굴하던 때의 일이다. 수개월에 걸치는 간고한 노력끝에 선생은 몇몇 학자들이 발굴해보다가 손털고 나앉은 평범한 흙무지에서 10여개의 고분을 발굴했다.

수레까지 묻은 10호무덤과 철기조차 없어 돌로 그 모양을 만들어 넣은 12호무덤은 빈부의 차이를 말해주는 생동한 산 자료였다. 또한 각이한 무덤에서 발굴된 철제유물들은 당시의 금속제조기술, 경제력의 장성과 군사력의 발전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물이였다.

선생은 무덤군과 유물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끈질긴 탐구와 예리한 고고학적 판단과 추리로 과학적 해명을 하면서 력사의 진실을 밝혔다.

조선반도에 적어도 기원전 3,000년기초에 강력한 노예소유자국가가 존재했음이 론의할 여지없이 고증된것이다. 그리하여 삼국시대를 마치 노예소유자국가가 존재한 시대인듯이 외곡한 낡은 학설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참으로 민족의 력사발전단계를 수십세기나 거슬러 올려놓고 민족의 유구성을 외곡했던 기성리론에 타격을 가한것은 선생의 경이적공적이다.

또한 대성산성을 발굴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산성발굴자로 내외에 널리 알려진 선생의 공적은 안학궁발굴이후 고구려식의 수도건설방식과 427년 고구려의 평양천도이후 대성산성이 수도의 중심임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더욱 공고화되였다.

정릉사의 발굴로 력사학계의 초점으로 되였던 동명왕릉의 정체를 선명히 하고 주변 고분들에 대한 고증, 특히 1탑3금당식 고구려 왕릉의 절간구조, 시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존중 등을 론증한 선생의 과학적공적은 참으로 크다.

이것은 일본신문들에 《아스까문화의 원형》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일본문화에 준 고구려의 영향력을 세계 력사학계에 알려준것으로 된다.



학생들에게 실물교육을 주는 채희국선생

실로 우리 나라 력사는 유구하며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는 선생의 드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은 남다른 과학적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선생의 고심분투의 흔적은 바로 그가 집필한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태성리고분발굴보고》 등 4만 7천 600여매에 달하는 220여종의 방대한 저작에 집약되여있다.

그 공로로 하여 그는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되였으며 오늘은 후보원사, 교수, 박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그의 재능은 천부적인가. 그는 사람들이 재능에 대하여 평할 때 이렇게 말하고있다.

《내가 재능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하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나를 재능있는 학자로 키웠다고 해야 옳을것입니다.》

욕망은 크지만 사상리론적으로 미숙한 그를 무려 15차례나 만나주시고 주체의 력사관으로 무장시켜주신분도, 그의 건강과 생활상 애로까지 풀어주시며 과학탐구의 길로 이끌어주신분도 다름아닌 어버이 수령 **김일성**주석이시다.

그리고 먼곳에 연구사업을 떠날 때에는 좋은 비행기를 타고 의사와 함께 가도록 해주시고 그가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고 경각에 다달았을 때에는 강력한 의료진을 동원하여 수술을 하도록 해주시였으며 해외에서 값비싼 치료기재를 사다가 건강을 유지하여나갈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렇듯 스승의 다심한 사랑과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의 영광의 언덕에 높이 오를수 있었던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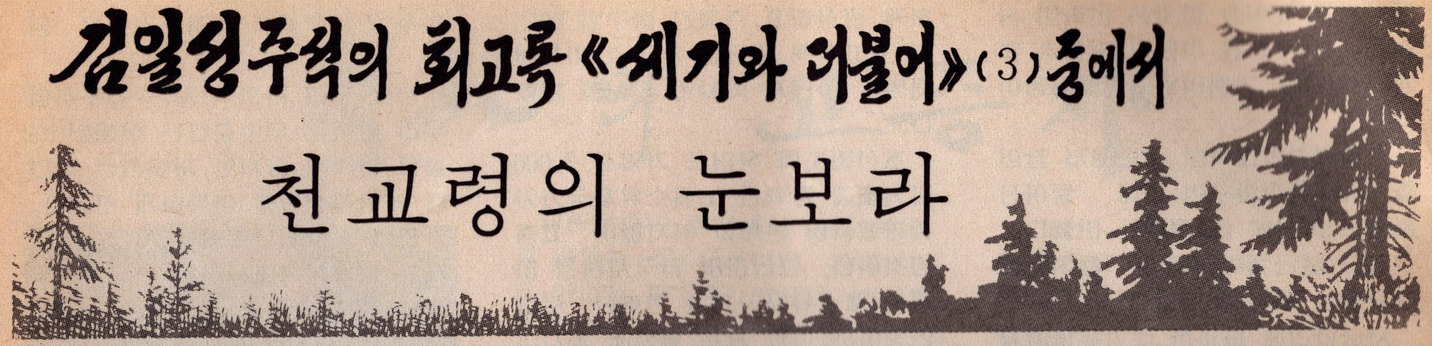
채희국선생의 나이는 지금 76살이다.

은퇴할 나이가 퍽그나 지났음에도 강좌장의 직분에서 젊은 교원들이 무색할만큼 그는 오늘도 강의에 정열을 쏟아붓고있다.

본사기자 리갑송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3)중에서

천교령의 눈보라



우리가 원정대앞에 나섰던 군사정치적과제를 수행하고 귀로에 오른것은 1935년 1월하순이였다.

…

녕안의 이름모를 봉우리와 골짜기들에 단벌홑옷차림으로 누워있는 전우들에게 안식이라도 주려는듯이 북만의 하늘에서는 그날도 발목을 휘감는 폭설이 물커지게 쏟아져내리였다. 그 폭설은 우리의 발자국을 메꾸어주었다. 은밀히 행방을 감추면서 행군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날씨였다.

그러나 그 푸짐한 하늘의 선물도 적의 매눈 같은 감시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감싸주지는 못하였다. 해발 700메터 정도 되는 릉선에서 원정대가 북만동무들이 싸준 점심밥을 먹고 간단한 휴식을 하고있을 때 적《토벌대》무리들이 멀리에서 나타났다.

…

우리는 추격해오는 상대가 어떤놈들인가를 알아보려고 정찰조를 파견하였다.

그 정찰조가 적을 답새기고 척후병 두명을 포로해왔다. 포로들의 진술에서는 우리와의 거듭되는 접전에서 여러번 참패를 당한 정안군 부대장 요시자끼의 이름이 자주 튀여나왔다.

원정대의 공격에 만신창이 된 요시자끼는 패전의 수치를 씻어보려고 거듭 유생력량을 새롭게 증강하였다. 그 부대가 바로 우리를 추격하고있는 《토벌대》였다.

…

우리는 하루에도 4~5차례씩 추격해오는 적들과 총격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가 행군하면 적들도 행군하고 우리가 숙영하면 적들도 숙영하였다. 정말 상대가 혀를 빼물정도로 지독스럽게 따라다니는 찰거마리 같은 놈들이였다.

…

어떤 곤난이 있든지 천교령목재소가 있는데까지만 가보자. 거기에 가면 식량이 많다고 평남양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서로 고무해주고 부축해주면서 꾸준히 행군을 다그치였다.

…

부대를 움직이는 지휘관의 수완과 통솔력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던 때에 원정대원들은 또 한차례의 타격을 받게 되였다. 내가 천교령부근에서 촉한에 덜컥 걸려 자리에 드러누워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였던것이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몸이였으니 병마인들 어찌 그런 육신에 쉽사리 달려들지 않을수 있겠는가.

온몸을 화독처럼 달구는 무시무시한 고열과 오한은 마침내 나를 눈구뎅이속에 사정없이 쓰러뜨리였다.

…

한홍권은 대원들과 함께 사람이 끌고갈수 있는 발구를 만들고 거기에 개가죽을 깔았다.

전우들은 그 발구에 나를 앉히고 이불과 노루가죽으로 내몸을 감싼 다음 번갈아 끌었다. 제발 이 이상 적들이 더 따라오지 말았으면 하고 하느님에게 기도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내 신변을 걱정하였으나 《토벌군》은 막무가내였다. 한편으로는 추격해오는 적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으로 앓는 나의 발구를 끌면서 험한 산령을 한치한치 돌파해가는 이 긴장된 활동은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하는 고역이였다.

…

내가 빈사상태에서 깨여났을 때 나의 주변에 있은 대원은 도합 16명밖에 되지 않았다.

눈정기를 모으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았대야 나를 에워싸고있는것은 16명뿐이였다. 다들 어데로 가고이 동무들만 남았을가. 그 아까운 전우들이 모두 천교령의 눈속에 묻혔단 말인가. 이렇게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왕대홍은 어데 갔소?》

목안이 말라서 말을 할수가 없게 된 나는 이불밑에 놓여있던 싸창자루로 설자(눈우에 쓰는 글)를 써보이였다. 그리고는 한홍권중대장의 얼굴을 맥없이 바라보았다.

한홍권은 대답대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수염이 검숭검숭한 턱밑에서 목젖이 풀떡거리는것이 보이였다.

《정치지도원동무는 전사했습니다.》

십리평에서 발진티브스에 걸린 나를 간호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김택근소대장이 울먹거리면서 대답했다. 얼굴을 보니 그도 수염이 더부룩하였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들이 뚤렁뚤렁 떨어져내리고있었다.

…

나는 아까처럼 권총자루로 다시금 눈우에 글을 썼다.

《왕대홍이 죽은 골짜기를 똑똑히 기억해두었소?》

《네, 그걸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김택근의 대답이였다.

《그러면 됐소. 해토가 되면 와서 묻어주자구.》

…

그러나 그후 우리는 왕대홍의 곁으로 다시는 가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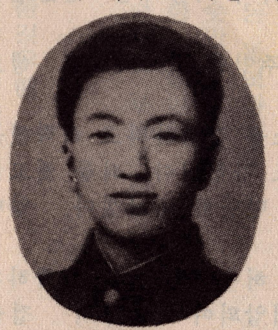
…

다음날 아침 고열에서 잠간 해방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수림속 공지에 서있는 발구와 그 주변에 쓰러져있는 16명의 전우들을 보았다.

…



한흥권



김해산

겁을 모르는 불새마냥 창창한 대공으로만 날아다니던 내 한생의 뜻이 여기서 그만 죽지를 꺾이우고 주저앉고마는가 하는 좌절감으로 하여 가슴은 천만갈래로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았다.

우리가 여기서 더 추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던 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쳤다. 나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조선민족의 슬픔은 곧 일제의 기쁨으로 되고 조선민족의 절망은 곧 일제의 쾌락으로 된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일본의 부자들과 군국주의자들밖에 기뻐할것이 없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이 만주오지에서 우리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절망에 빠져 투항하기를 고대하고있다.

력사는 우리에게 아직 죽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력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줌 흙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불효자이다. 한 가정이나 가문의 범위를 뛰여넘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인민앞에서 불효자가 되고마는것이다. 우리는 결코 불효자가 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무겁게 내려감기는 눈시울을 눈가루로 문지르고 급하게 줄달음치는 사색을 침착하게 이어갔다.

만일 우리 혁명군이 천교령의 빙설속에 그대로 매장되여 영영 자취를 감춘다면 우리 인민에게로 쏠리는 일제의 폭압은 대번에 10배, 100배로 강화될것이다.

…

내 머리속에서는 문득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반일전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래를 낳은 시상이였다.

…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나는 발구가까이에 쓰러져있던 왈룡이를 흔들어 앉힌 다음 그에게 가사를 받아쓰게 하였다. 처음에는 나와 왈룡이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쓰러졌던 전우들이 하나둘 일어나 노래를 합창하였다.

우리는 아침 10시경에 시패린즈에 있는 어떤 목재소에 들리였다. 강낭죽이라도 먹고 땀을 내자는것이였다.

그날 나의 체온은 40도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치료방법이란 강낭죽이나 먹고 중국호주에다 홍탕을 타서 먹는것이였다.

땀을 내야 차도가 보이겠는데 발구를 타고 장창 한지에서 떨며 지내다나니 병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각일각으로 악화되여가기만하였다. 전우들은 혼수상태에서 고열과 싸우는 나를 지켜보며 이제는 원정대가 구출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였다. 누구도 우리가 이 위기에서 솟아나 왕청으로 돌아가게 될것이라는 락관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침통한 기분으로 중대장인 한홍권에게 만사를 일임하고있었다.

한홍권은 목재소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하는 김로인에게 강낭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우리 일행은 옹근 이틀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처음에 우리 동무들은 이 로인을 중국로인으로 보았다.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였기때문이였다.

우리가 간도에서 온 조선유격대라는것을 알자 김로인은 자기를 조선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팔도하자에서 유격대 대장으로 활동하는 김해산이라는것까지 다 이야기하였다.

김해산은 1931년의 겨울명월구회의 참가자의 한 사람이다. …

일행이 목재소에 들어가서 로인과 인사를 나눈지 얼마 안되여 한홍권은 적 《토벌대》가 목재소근처에까지 접근해왔다는 정찰보고를 받았다.

그때 왈룡이는 뚜껑도 없는 양재기를 부억아궁이에 넣고 내가 먹을 물을 끓이고있었다. 한편으로는 내 발에서 벗겨낸 젖은 신발도 말리였다.

그는 대장의 병도 호전되지 않고 포위를 헤치고나갈 가망도 없으니 이제는 일이 다 틀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길림에서 나를 따라 떠날 때에는 그도 맹세가 대단했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였다.

왈룡이가 한창 울고있을 때 장작개비를 안고 부엌에 들어온 김로인이 그에게 왜 우는가고 물었다.

《대장은 앓고… 〈토벌대〉는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 한시간후이면 그놈들이 이 목재소에 들이닥치겠는데 빠질 구멍이 하나도 없으니 답답해서 웁니다. 빠지려면 강을 건너야겠는데…큰 강이고 얼지도 않았으니 물로 건너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다리로 건너가야 살길이 열리겠는데 거기엔 〈토벌대〉들이 1개 중대나 있으니 이거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김로인은 왈룡이의 하소연을 듣고나서 그에게 포위를 뚫고나갈수 있는 묘술을 하나 대주었다.

《젊은이, 너무 상심말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네. 우리 주인놈이 만주국 앞잡이인데 얼마후 여기로 올수 있네. 그러니까 이 주인놈을 붙잡게. 그놈을 잘 구슬려 〈토벌대〉가 목재소로 오지 않게 련락만 하게 하면 당신네들은 저녁때까지 여기서 견딜수 있네. 그 다

음수는 저녁이 된 다음 궁리해보자구.》

왈룡이는 김로인이 한 말을 그대로 한홍권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여 한홍권이 일행을 대표하여 그 로인과 담화를 하게 되였고 그 담화를 통하여 최종적인 탈출안을 확정하게 되였다.

한홍권은 김로인의 처방대로 주인을 비끄러매고 생트집을 걸었다.

《너 이놈, 누가 너더러 목재소를 경영하라고 허락했는가. 만주국이란건 우리가 승인도 안한거야. 죄를 씻고싶거든 우리 군대에다가 의연금을 단단히 내야겠다. 얼마나 내겠는가?》

주인은 키가 천정에 닿을만치 허우대가 크고 뚝뚝하게 생긴 한홍권의 외모와 엄포에 위압되여 처음부터 겁을 먹고 설설 기였다.

《아, 뭐 당신네가 바라는대로 냅지요.》

한홍권은 군복이 얼마, 돼지가 얼마, 밀가루가 얼마하고 일부러 주인이 기절해넘어질만한 엄청난 수량을 부르고나서 너 이걸 낼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나를 살려만 주면 당신네가 여기 있을동안 〈토벌대〉가 안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오게 하겠는지 그 방법을 말해보라.》

《당신네 빨찌산이 다른데로 빠져나갔다고 하면 되지요. 내가 〈토벌대〉장교들과 가까운 사이니까 그들이 내 말은 신임합니다.》

《네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를 용서할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반일이다. 너도 죄를 씻고 반일을 하고싶은 생각이 있거든 우리를 협력하라.》

《요구대로 하겠으니 어서 나를 풀어만 놔주십시오.》

그 중국인목재상도 머리는 명석한 사람이였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것이 물자가 아니라 신변안전에 있고 포위를 무사히 돌파해나가자는데 있다는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목재상이 대장이 누군가고 자꾸 묻자 한홍권은 나를 로출시키지 않기 위해 《대장은 나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인이 나를 가리키며 《저분은 어떻게 앓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몸이 좀 불편해서 누워있다고 어름어름해 넘기였다.

목재상은 약속을 잘 지키였다. 그가 련락을 해놓은 덕에 《토벌대》는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목재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재소에서 아침겸점심을 먹고 저녁식사도 하였다.

저녁상에는 돼지고기도 올랐다. 입맛을 잃은 나는 갈증을 덜려고 강낭죽물만 조금 먹었다.

저녁식사가 끝난 다음 김로인은 탈출계획의 제2부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대단한 명안이였다.

이제는 다리를 무사히 통과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든지 당신네들이 전술을 잘 짜야 한다. 우선 얼렁뚱땅해서 경비초소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목재소주인을 앞세워가지고 다리까지 가서 그놈의 힘을 빌어 경비병들을 속여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

놈들이 접근해서 검색을 하면 날쌔게 답새기고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건너만 가면 김사령을 업고 산으로 안내할수 있다.

다리목에서 20리쯤 내려가면 깊은 골안이 있고 그 골안에 자그마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막바지에 조선사람의 집 세호가 있다.…

그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면 김사령의 병치료도 문제가 없을것이다.

한홍권이 이 계획에 동의해나서자 김로인은 흐뭇해하면서 이런 안을 덧붙이였다.

다리를 건늘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소대장이 응전하는것이 좋겠고 나머지는 내 안내에 따라서 움직여달라. 중대장은 키가 크고 힘도 쎄니 김사령을 업고 내 뒤만 따라오라. 다리만 건너가면 그쪽 산발은 내가 다 꿰들고있으니 놈들이 암만 따라와도 문제가 없다. 다리를 무사히 건느게 되면 나하구 주인을 녕안현시가지근방까지 데리고 가달라. 거기 가서는 나를 좀 때려달라. 주인도 움쩍 못하게 위협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머지사람들은 중대장과 같이 김사령을 모시고 골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한홍권은 그 말까지 듣고나서 나에게 로인이 내놓은 안을 소개하였다. 듣고보니 아주 리상적인 안이였다.

…

밤이 되자 한홍권은 목재소주인을 내세워 다섯채의 말파리를 준비하였다. 그 목재소에는 말이 많았다. 싸움을 잘하는 김택근소대장이 주인과 같이 앞말파리에 타고 나는 세번째 말파리를 차지하였다.

다리를 지키고있던 일만혼성군 보초들은 우리 일행을 보자 어둠속에서 《누구얏?》 하고 물었다.

목재상은 우리가 짜준 각본대로 우리 로동자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도 가고 녕안시내에 쌀 좀 사러 가는 길이라고 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목재상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보초병들은 말파리곁에 다가오지도 않고 《가라.》 하고 소리쳤다.

다섯채의 말파리는 쏜살같이 다리를 건너가고있었다. 말파리밑에서 흔들거리는 나무다리의 진동이 개가죽을 거쳐 내몸에까지 미쳐왔다. 다리밑으로는 사나운 강물이 사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리고있었다. 그 강은 목단강으로 흘러드는 큰 원류였다.

《이제는 됐네! 그러면 그렇겠지.》

말파리들이 다리를 다 건너서자 김로인은 흡족해서 한홍권을 끌어안았다.

전설이나 정탐소설 같은 이 모험극은 이처럼 통쾌하게 막을 내리였다. 일행은 그 다음공정들도 계획대로 무난히 치르었다.

…

우리 유격대가 인간해방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무력이라는것을 인민이 몰랐더라면 그리고 그 유격대의 영상이 아름답고 신성하고 거룩한것으로 인민들의 망막속에 깊이 심어지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때 천교령에서 김로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사에 천교령의 전설과 같은 신비로운 전설도 태여나지 못하였을것이다.

〈시〉

그 이름 영원히 빛나라

—김정일비서의 탄생 52돐에 즈음하여—

일본 일조우호자료쎈터 사무국장
도가사 후미오

붉게 물든 동녘하늘에
태양이 솟았다
그 찬연한 빛발받아
대지는 숨쉬고 푸르러지누나

자주의 한길우에
혁명의 기발 휘날리라
붉은 피 끓게 하는
태양의 빛발이여

탁월한 수령의 대를 이어
혁명의 주체 튼튼히
마련하시고
자애로운 사랑 강토에
부어주시니
7천만은 그이를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통일의 날 앞당겨가네

위대한 수령님을 거울삼아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신을 비쳐보시는 그이
아 그 이름 빛나는 김정일
아 조선은 영원히 노래하리

혁명의 큰뜻 키워주는 성지
백두의 성산이여
너는 영광의 무지개 활짝 펼쳐
조선의 앞길 환히 밝혀주고
오직 그 한길따라 나아가는
인민들 마음
더 밝고 굳세게 하여주누나

원수님의 사상 위대하여
주체의 문화 조선에 만발하고
온 세상 인민들
아름다운 새 력사 창조해가네
주체의 종소리 울려퍼지니
조선의 미래 찬란하여라
아 그 이름 빛나는 김정일
아 조선은 영원히 노래하리

1994년 2월 16일

별치않은 이야기

김석주

나는 쉰한해를 살아왔다
그중 마흔일곱해를 이 제도에서 살았다
인민학교 그 시절에
교사의 널판자벽에 먹칠을 하고
풀을 베여 학교지붕을 위장하며
이 제도를 지키는 나날에 장난을 모르고 자랐다

세상을 놀래울 큰 일은 못했어도
철부지 중학시절부터
허리띠를 조여매며
가마니등짐으로 저수지뚝을 쌓았고
허리치는 감탕속에서 유보도 장석을 쌓으며
전후의 날에 이 제도를 다져 땀도 흘렸다

나는 마흔일곱해 우리 사회주의의 덕을 입었다
이 제도가 주는 밥을 먹고
이 제도가 주는 옷을 입고
이 제도가 준 좋은 집을 쓰고살며
인생의 진미와 참된 가치를 알았다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었고
존엄높이 머리들고 떳떳이 살았다

나를 안아주고 키워주고 지켜주는
그 고마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수령님을 어버이라 칭송했고
우리 당을 어머니라 노래했고
이 제도가 제일이라 소리높이 자랑했다

나는 보통사람이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이 제도를 따라야 살수 있고
이 제도를 지켜야 살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제도가 아니면
그 누가 지금처럼 식의주걱정을 모르며
그 누가 나의 생활과 운명을 책임져주랴
이 제도를 잃으면 나는 다시 자본의 노예
누구나 꾀집고 쥐여박으며
누구나 무권리한 이 인간을 부려먹자고 할것이다
부자집문전에서 허리굽히게 되고
남의 처마밑에서 비를 긋게 될것이다

나에겐 사회주의 이 제도가 좋다
남이 던져주는 기름진 고기덩이보다
그것이 따뜻한 밥 한그릇이라면
마음편히 제집에서 맛있게 먹을수 있는것이 좋다
나는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
이 제도를 지켜야 살수 있고
우리 당을 따라가야 살수 있는 사람이다

전통적인 국제예술축제

산과 들에 온갖 꽃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 흩날리던 지난 4월, 민족의 경사스러운 봄명절을 맞이한 기쁨으로 사람들이 활기에 넘쳐있는가운데 수도 평양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밑에 해마다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열두번째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국제, 국내 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하여 이름있는 배우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 우리 나라 예술인들 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4월 9일 2.8문화회관에서 개막된 축전무대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뜨거운 흠모의 정이 담긴 수많은 축원의 송가작품들, 침략과 전쟁, 착취와 압박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을 민족적색채가 짙게 형상한 다채로운 예술종목들이 펼쳐졌다.

특히 해외동포예술인들은 언제나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는 이역동포들의 절절한 마음들을 특색있는 노래와 춤으로 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이 출연한 설화와 노래 《수령복을 노래하세》, 녀성독창과 3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녀성독창 《수령님 모신 영예 끝없습니다》 등 종목들은 세련된 예술적형식, 품위있는 예술형상으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의 녀성독창 《오직 한마음》, 시와 노래, 무용 《잊지 못할 조국》, 무용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등 여러 종목들은 특색있게 형상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정서적여운을 안겨주었다.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은 시와 무용 《만수축원의 큰절을 드리옵니다》, 녀성독창 《수령님 우리 마음 받아주십시오》, 무용 《경축무희》, 민요독창과 2중창 《잦은 방아타령》, 6중창과 합창 《총련의 대를 이어 나가렵니다》 등 종목들에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 조국통일성업을 앞당길 불타는 결의를 훌륭히 형상하여 보여주었다.

축전기간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축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리시고 련환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진행된 련환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탄생일을 맞으시는 주석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축전참가자들은 이번 축전에 대한 소감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린 감사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번 축전은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교류와 친선관계를 보다 발전시킨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이였습니다.》

《이번 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밑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시대의 찬가로 소리높이 노래한 친선과 단결의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참으로 세계 여러 나라 민족예술의 향취가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예술적화폭들로 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던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진보적문화예술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문화적련계를 발전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한 전통적인 국제예술축제였다.

4월 18일에 있은 폐막식에서는 축전에서 훌륭한 예술적기량을 보여준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에게 축전상이 수여되였다.

평화를 사랑하고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문화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의 노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더불어 날을 따라 더욱 힘차게 울려퍼질것이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상을 받은 해외동포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재일조선인예술단

△ 개별상

—독창

· 홍령월(재일조선인예술단)
· 리경춘(재중조선인예술단)
· 박 류드밀라(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독무

· 김영심(재일조선인예술단)
· 박 알료나 웨(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 차 가이 클리나 엔(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 종목별상

—성악

· 민요독창과 2중창 《잦은 방아타령》(재일조선인예술단)
· 녀성독창과 3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재중조선인예술단)
· 시와 노래, 무용 《잊지 못할 조국》(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 설화와 노래 《수령복을 노래하세》(재중조선인예술단)
· 6중창과 합창 《총련의 대를 이어 나가렵니다》(재일조선인예술단)

—무용

· 《경축무희》(재일조선인예술단)
·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 《만수축원의 큰절을 드리옵니다》(재일조선인예술단)
· 《물동이춤》(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본사기자



까자흐스딴예술단의 관현악 《아버지의 생각》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개막공연 《비둘기춤》의 한 장면



설화와 노래 《수령복을 노래하세》(재중예술단)

재일조선인예술단의 무용 《경축무희》





몽골예술단의 남성독창 조선노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말레이시아음악가일행
녀성독창 조선노래
《반갑습니다》



프랑스예술단의 혼성2중창



유고슬라비아독창가의 녀성독창
조선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



나이제리아예술단의 《어부들의 춤》



무용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무용 《곱빠크》(우크라이나 돈바쓰무용단)



캄보쟈왕실무용단의 무용 《압싸라》



중국예술단의 《서북민족가무》



화란음악단의 녀성독창



벌가리아교예단의
《중심장대》



발레무용 《돈키호테》
(로므니아예술단)



남성합창과 2중창 (몰도바예술단)



이딸리아벨따레 아르떼예술단의 혼성2중창



로씨야독창가일행의 독창《삼두마차》



애급나일민속음악단의《민요서곡》



독창 조선노래《조선은 하나다》
(일조음악예술교류회대표단)



꽁고3중창단의 남성3중창 조선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마로끄 벤슬라마교예단의《3인조형》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칭송하여 노래하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



사진 김광

【인상기묶음】

동포들은 말한다

내가 하고싶은 말

나는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조국동포들과 더불어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다.

나는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한다.

최근년간 조선반도를 둘러싼 사태는 나의 민족적궁지를 크게 자극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국제질서로 굳어진 《랭전체계》가 붕괴되였으나 아직 새로운 국제질서는 확립되지 못했다고 볼수 있다.

지금 세계는 이 질서를 저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보려는 각축전마당으로 변했다. 일부 나라들은 방대한 핵무력을 배경으로 저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기도 한다.

이런속에서 가장 심상치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이 미국의 강경파세력이다.

그들은 세계도처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있으며 계속 세계를 《주도》할것을 노렸다. 먼저 이라크를 눌렀고 이번에는 조선을 눌러보려고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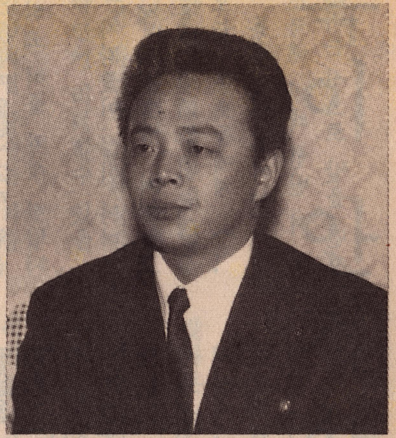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선정하였다.

《유일한 초대국》을 상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과거에는 큰 나라가 국제질서를 세웠고 작은 나라는 이에 따랐다고 볼수 있다.

최근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협상은 그러한 국제질서확립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미국을 상대하여 계속 동요없이 전진하는 나라의 해외공민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을가 하고 조국



방문기회에 생각해보았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 일심단결된 조선의 모습…

마땅히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조선의 정치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것을 나는 국제정치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싶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
래석신

리인모선생처럼!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리인모선생을 한번 만나뵙는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였습니다.

그런데 조국방문기간 그 소원이 이루어져 리인모선생과 뜻깊은 상봉을 하였으니 그 기쁨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군요.

선생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 지경에 들어서는 모습을 룡정시에서 텔레비죤록화물을 통해 볼때는너무도 허약해지고 처참해진 그 모색에 가슴이 아팠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딴 사람이 되였더군요.

불긋불긋하게 혈색이 좋아진데다가 매우 락천적이였습니다.

정말이지 34년동안이나 남조선땅에서 감옥생활을 하며 페인이 다 되였던 사람이라고는 너무나 믿기 어렵더군요.

건강을 회복한 선생을 대하고보니 저의 머리속에는 《고목재봉춘》이라는 문구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늙고 마른 나무에 봄이 깃들어 새움이 돋아나듯이 리인모선생도 인생말년에 《재봉춘》하였으니 이런 경사가 또 어데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리인모선생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여주시고 오늘은 그로 하여금 《고목재봉춘》하게 하시였으니 그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리인모선생만이 아닌 해외공민 우리들, 조선민족전체가 운명을 맡기고 살아갈 품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 품이라는것을 저는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어데 가서나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고 조선사람답게 살아주오.》

리인모선생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그 고무적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조국을 위해 더 할수 있는 일을 못하였으니 그럴수밖에요.

조국에 대한 신념과 의지란 뭐겠습니까. 그것은 리인모선생처럼 우리 수령님과 우리 지도자선생님만 믿고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간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방문단성원들은 리인모선생을 만나보고 귀중한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리인모선생과 작별하면서 마음속의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다! 살아도 리인모선생처럼 살자. 그를 본받아 통일성업에 모든것을 바치자!)고…

중국 길림성 룡정시 안민가
리룡선

—해외동포소식—

참으로 미더운 동포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살고있는 전계숙 동포녀성은 올해 나이가 62살입니다.

이제는 넌장자축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어요.

허지만 그를 보고 로쇠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아직 청춘이니까요.

조국을 떠나온 그날부터 줄곧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살며 일해오는데 공민애국사업에 얼마나 극성인지 모른답니다.

그는 스스로 좋은일을 찾아하고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좀처럼 말하지 않는것이 특징이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해주어서야 《아니 원, 어느새 소문도 없이 그런 일을 다 했나!》하고 혀를 차게 한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나 골목에 가게방을 차려놓고 조국의 상품들을 팔기도 하는데 물건을 사러 오는 동포들에게 《자, 이건 조국의 동해바다 북어야. 맛을 보면서 조국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라구.》라는 식으로 말을 던군하지요.

교회당에 다니는 동포청년들에게는 《하느님을 믿어도 조국의 하느님을 믿어야 하고 기도를 드려도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절절히 말해주군 한답니다.

그뿐이 아니예요. 혹 남조선에서 누가 친척방문차로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야 걸음을 걸어서 찾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지금 이러저러한 일들을 벌려놓고있는데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고있는가. 우리는 다같은 조선민족이다. 손을 잡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힘쓰자.》라는 식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도 조항별로 차근차근 해설해준답니다.

전계숙동포녀성은 해방전에 지주집 아이보개노릇을 하면서 쓰라린 생활체험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과 귀중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각오와 의지 또한 강해요.

다섯이나 되는 자식을 키워내면서 기어이 아들 하나는 대학까지 졸업시킨 이악한 살림군이지요.

그의 별명은 《장고쟁이》랍니다. 이름보다도 《장고쟁이》라고 하면 우리 고장 동포들속에서는 더 잘 통해요.

장고를 하도 잘 쳐서 달린 별명이지요.

그가 우리 민족 고유의 악기의 하나인 장고를 치면서 《아리랑》이나 《노들강변》과 같은 민요들을 한바탕 불러댈 때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이 넋이 나갈 지경이예요.

워낙 장고에 취미가 있는데다가 치는 솜씨 또한 여간이 아니여서 언제인가는 그의 남편이 소가죽을 이겨 장고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준 일까지 있답니다.

그렇다고 그저 흥이나 돋구자고 장고를 치는게 아니예요. 그런속에서도 동포들의 가슴에 조국의 얼을 심어주기에 애쓰지요.

언제인가는 장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난 뒤끝에 《여러분!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우린 어데가서나 부끄럽지 않고 떳떳해요. 나라를 빼앗겼던 지난날같으면 이런 보람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린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조국의 몸이고 조국이 우릴 지켜주고있다는걸 잊지 말자요.》라고 절절하게 말해서 깊은 감동을 자아낸 일도 있답니다.

우리 고장의 중국사람들도 전계숙동포녀성을 무척 좋아해요.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그들은 저저마다 전계숙동포를 초청해가는데 거기 가서도 그는 장고를 치면서 조선노래와 중국노래를 부르며 한바탕 놀아줍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조중친선의 감정이 후더분하게 꽃펴나요.

참으로 공민애국사업에서도 열성이 높고 생활에서도 락천가인 그를 놓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우리 마을의 보배랍니다.

이런 미더운 동포들이 더욱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 길림성 왕청현 왕청진
대청가 림옥순

수기

민족이 안겨사는 품



오매불망이란 말이 있듯이 내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했던가. 망향에 몸부림치며 울던 심경은 타향살이를 겪어본 사람만이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명절날, 생일날이면 향수는 가슴속에서 초불로가 아니라 모닥불이 되여 타번진다.

몇해전 나의 환갑날에도 그러했다.

이웃에서 사는 친지들과 동포들이 나의 환갑을 축하해주며 모두들 축배잔을 들려는 순간, 불현듯 부모님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오르고 어릴적 뛰놀던 버들방천이 그리워져 망막이 뿌옇게 흐려지는것이였다.

그날 저녁 친지들과 손님들이 다 돌아간후에 나는 빈방의 침대에 엎드린채 어릴 때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소리내여 울었었다.

그렇듯 그리움의 상징이고 전부였던 조국땅을 장장 40여년만에 찾아온 이 몸이다.

17살 단발머리 처녀시절에 고향땅을 떠날 때는 한두달 지나면 쉬이 돌아올줄 알았으나 인생의 황혼기에 그것도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에야 밟아보게 된 조국이다.

그래서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의 친혈육같았고 조국의 산과 강, 지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정답게 안겨오고 무심히 스쳐지내 보낼수가 없었다.

나는 숙소에 조국방문의 려장을 푼 첫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참관했는데 잊을수 없는 감흥을 받았다.

유서깊은 고장의 유정한 산천과 더불어 청빈했던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추녀낮은 초가집, 손때묻은 농쟁기들과 찌그러진 독, 살림도구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인민이 겪는 고통과 불행, 가난과 슬픔을 몸소 체험하시였기에 인민을 위한 정사를 베푸실수 있었다는것을.

만경대참관에 이어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을 돌아본 소감을 털어놓는다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이였다. 하늘의 기둥처럼 높이 솟아있는 주체사상탑과 조국인민들이 전민학습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인민대학습당, 락하산모양의 은색지붕을 얹은 5월1일경기장, 서해갑문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조국인민들의 건설실상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친동기처럼 살틀하게 대해주는 조국인민들의 가식이 없는 환대속에서 조국방문의 하루하루는 너무도 빨리 흘러갔다. 이 나날 나는 아름다운 공원들과 유보도들, 유원지들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고 창광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통일》이라는 기차를 타면서 동심에 사로잡혀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내 나이 환갑이 지난 할머니가 아니라 어린시절로 되돌아간듯한 기분에 들떠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안내원동무가 오늘은 평양산원을 참관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또 녀성이라는데로부터 더욱 관심을 모으는곳이였기때문이였다.

우리 일행을 태운 소형뻐스가 옥류교를 지나서 평양시의 대동강구역에 있는 현대적인 고층건물앞에 이르렀다.

이 집이 바로 조국녀성들이 《친정집》이라고 부르는 평양산원이였다.

이런 훌륭한 산원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일떠섰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는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정말 인간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녀성들을 끌없이 아끼시고 내세워주시는 이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이시기에 이런 현대적인 산원을 배려하여주실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분이시기에 공화국을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빛내여나가시는것이다.

나는 평양산원에서 귀여운 옥동자를 안고 기쁨과 행복에 넘쳐 퇴원하는 녀성들을 보면서 한 인간의 기쁨과 한 가정의 기쁨, 아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위대한 령도자의 인덕정치,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확신했다. 하기에 우리 해외동포들도 온 민족이 안겨사는 조국을 못내 그리워하고 끝없이 동경하면서 그 넓은 품으로 더더욱 찾아오고있는것이 아닌가!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해주는 따뜻한 어버이사랑으로 해외동포모두를 넓은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조국을 위해 내 비록 녀성의 몸이지만 해외에서도 조선민족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는 미룰래야 미룰수 없고 더는 끌래야 끌수 없는 민족의 만남, 혈맥을 잇기 위한 조국통일성업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다.

로련 하바롭쓰크변강 비로비쟌시
조순단

평양친선병원

해외에 계시는 조선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힘쓰고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병원이 설립된 때로부터 꼭 20년이 되였습니다. 그간 많은 해외동포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았는데 그런것을 보면 우리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은 치료받을 일이 생기면 의례히 우리 병원으로 찾아오니까요.

작년 한해동안에만도 우리 병원을 다녀간 해외동포들의 수는 2,000여명에 달하며 그들이 찾아와 치료받은 회수는 연 12,000여회나 됩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을 많이 대상하여 치료하고있지만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올 때면 류다른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조국인민들이 누리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지는것이 기쁘고 또한 한피줄을 나눈 동포들에게 정성을 기울였다는 보람과 긍지가 생기게 되니까요.

하나의 혈통을 나눈 혈육들끼리는 서로 끌리고 정이 통하는것을 어쩔수가 없구만요.

설사 처음 만나는 동포라 할지라도 같은 한겨레인것으로 하여 조금도 생소하지 않은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중국과 로씨야, 일본은 물론 먼 서구라파와 북미주에서 살고있는 동포들도 찾아옵니다.

그중에는 심한 위궤양출혈로 인하여 혈색소가 30%나 떨어져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가 우리 병원에 1개월나마 입원해있으면서 수술을 받고 소생한 총련금강보험주식회사 사원인 박인수동포도 있고 고질적인 심장질환으로 애를 먹다가 치료받고 완쾌되여 돌아간 미국 멜론대학 교수인 김광훈동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고있는 김창훈동포는 백내장으로 인하여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다싶이하였지만 우리 병원에 와서 성의껏 치료받고 시력을 회복한 다음 기쁨에 넘쳐 돌아갔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랑같습니다만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해외동포들은 병원이 깨끗하고 의술에 능하며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심이 높은데 대해 말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려의학의 치료효과가 높은데 대해 많이 말합니다.

그들은 조국에 와서 제 사람들한테서 치료받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서방세계에서 온 동포들은 다른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한두번 치료받자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조국에서는 그 어떤 위급한 병이라 할지라도 임의의 시각에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서방세계에서 선전으로 듣던것과는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회주의 이 나라에서 사는 보람과 긍지에 대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안겨지는 무상치료제의 크나큰 혜택의 고마움에 대해 다시금 가슴뿌듯이 느끼군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병을 깨끗이 털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것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해외에 계시는 조선동포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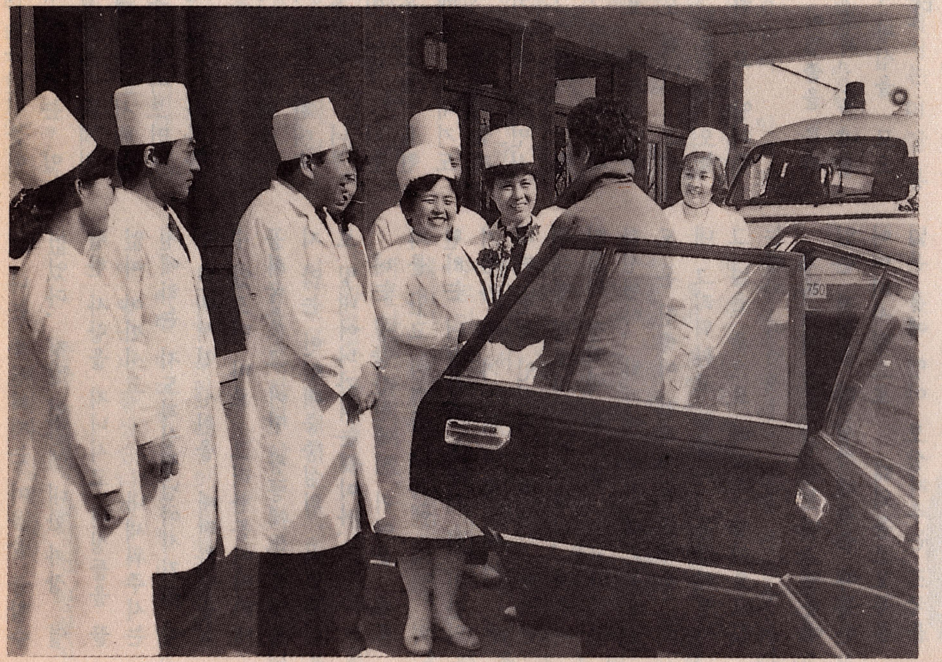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 병원으로 찾아오십시오.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성의껏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한피줄을 나눈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떠나보내고 또 기다리게 되는것이 우리 생활의 하나의 긍지이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안녕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친선병원 김창민

퇴원하는 날



인민의 지도자

수술립회

1973년 10월 어느날, 항일투쟁에 참가했던 한 로투사가 난치의 병을 앓고있을 때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투사가 입원한 병원을 찾으시여 그를 만나주시고 절대로 병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맥을 놓아서는 안되며 신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의사들을 따로 만나시여 그의 치료대책에 대해 여러가지로 의논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어려운 수술을 해서라도 꼭 그의 병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간곡하 가르치시였다.

얼마후 수술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조용히 자기 위치를 차지한 의사들은 수술준비상태를 침착하게 다시 확인해보았다.

환자의 상태는 정상이였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시작하려는 그 찰나였다. 갑자기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모든 측정계기의 수자들이 정상선밖으로 벗어져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기와 그라프의 수자들은 더욱 혼란상태를 보여주고있었다.

일은 딱하게 되였다.

이대로 그냥 수술에 착수할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수술을 그만둘수도 없었다.

난감한 일앞에서 의사들과 간호원들, 일군들은 안절부절못하였다.

바로 이때 수술장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어서시였다.

이날 환자의 수술정형을 보시려고 병원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어느 한 방에서 산업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수술장을 주시하고계시였다.

그러시다가 환자의 몸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상태때문에 의사들이 당황해하는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병원일군에게 말씀하시였다.

《나에게 위생복을 가져다주시오. 아무래도 내가 가족들과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해서 수술립회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그이께서 그렇게 뜻밖에 수술장으로 들어오셨던것이다.

한 일군이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환자의 마음이 진정되면 책임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겠으니 그이께서 수술립회를 하시는것만은 그만두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환자가 진정하고 수술을 받을수만 있다면 백시간이라도 일없다고 하시면서 어서 수술을 하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대곁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떻습니까? 환자가 아직도 흥분상태에 있습니까?》

이때에야 그이께서 오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환자는 무작정 수술대우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급히 다가가시여 그를 다시 수술대우에 눕히시면서정답게 타이르시였다.

《일없습니다.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내가 수술립회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환자의 손을 힘주어 잡아주시며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수술을 꼭 받아야 합니다.

힘이 들면 내 손을 꽉 잡으십시오. 제가 수술이 끝날때까지 여기 앉아있겠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그이께 손을 맡긴채 평온한 기분으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의사들은 놀라운 일앞에 감동되였다.

각종 계기와 그라프의 수치들이 점차 정상상태로 되돌아갔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의사들을 바라보시며 어서 수술을 시작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수술이 시작되였다.

의사, 간호원들은 전에없이 침착하고 확신성있게 수술을 다그쳤다.

수술은 예상외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그이께서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환자의 손을 꼭 잡으신채 그 자리에 계시였다.

마침내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이께서는 아직도 환자의 손을 꼭 잡으신채 그의 얼굴에 비낀 사소한 변화라도 놓칠세라 지켜보시였다.

로투사는 자기의 몸을 지켜주고있는 위대한 사랑에 푹 잠긴듯 대수술을 받은 환자답지 않게 얼굴에 알릴듯 말듯 미소를 짓고있었다.

《수고했습니다. 인제는 한시름을 놓게 되였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의사들과 간호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미소어린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줄줄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이를 우러르는 의사들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기술이나 힘으로만 수술을 성과적으로 해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후 로투사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자기의 초소에 설수 있었다.

농촌건설의 새로운 단계

얼마전 본사기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후 30년간에 이룩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 국장 임창덕을 만나 회견하였다. 그 내용을 추려서 소개한다.

기자—지난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30돐을 맞으며 열린 전국농업대회에서는 농촌테제실현에서 이룩된 성과를 총화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농업부문의 과업을 제시한 회합으로서 매우 의의가 컸다고 생각한다.

임창덕—전국농업대회는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기간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전국의 협동농장, 국영농목장 관리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국영농업기업소와 농업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 농업과학부문 일군들을 비롯하여 무려 1만여명이 참가한 대회합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전국농업대회앞으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는 전국농업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주었다.

대회에서는 지난 30년간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이 총화되였다.

그 성과는 무엇보다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의 면모가 새로와진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신념과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고있다.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일어난 전변은 사실 몇백만톤의 쌀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성과라고 할수 있다.

오늘 농촌에서는 11년제의무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주력부대를 이루고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통하여 육성된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가 농촌경리를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다.

수많은 농촌문화주택과 문화후생시설이 건설되고 농촌에서 수도화와 뻐스화, 텔레비죤화, 진료소의 병원화도 실현되여 문화생활조건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과업도 이미 실현되였으며 특히 수리화, 전기화의 과업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였다.

최근년간 서해갑문이 건설된후 서해지구 곡창지대의 물문제를 풀기 위한 2천리 큰물길을 건설하여 대동강과 례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륜환식관개망으로 련결시키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물문제가 보다 원만히 풀릴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많은 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오늘 농촌에서 한해에 쓰는 전력은 1963년에 비하여 8.6배로 늘어나고 농촌경리분야에서 전기리용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1970년대에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의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한것을 비롯하여 농기계생산기지들을 조성함으로써 지난 30년간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는 6배, 자동차는 5배로 늘어났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도 적극 추진되여 논밭 정당 화학비료시비량은 2톤이상에 이르고 시비의 효과성을 높여 질소비료시비량에 대한 알곡생산량을 1대 10이상 보장하고있다.



또한 지난 기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통한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와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강화되여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가 농촌에 널리 보급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적련계가 강화되여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에 끊임없이 접근되였다. 농촌건설을 비롯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매우 높아졌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과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농업생산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지난 30년간 농촌에서 알곡생산량은 1.9배, 그중 논벼는 1.8배, 강냉이는 2.2배로 장성하였다. 농촌테제 발표 30돐을 앞둔 지난해에 특히 대풍작이 이룩되였는데 알곡 10만톤, 15만톤 이상 생산하는 시, 군들과 1만톤이상 생산하는 협동농장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30년전 8,000여톤의 알곡밖에 생산 못하던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에서는 2만여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과 포기농사방법에 의한 집약농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지난 기간 논벼와 강냉이를 한정보에서 2~3톤밖에 내지 못하던 땅에서 지금은 8톤, 9톤, 10톤, 15톤씩 생산하고있다.

우리 농민들은 사회주의문화농촌에서 식의주걱정을 모르고 국가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살고있고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사회보장제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적 혜택을 받고있다.

오늘 사회주의는 우리 나라 농촌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운명과 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이처럼 지난 기간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승리가 이룩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다.

기자—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바라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이제 우리가 분발하여나간다면 조만간 이 문제해결에서 력사적인 승리가 이룩될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은 어떤것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는가?

임창덕—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인민, 특히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주석께서 보내주신 서한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는것이다.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며 특히 현시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또한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이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관개시설들을 잘 관리보강하는 사업에 달라붙고있으며 늘어나는 간석지와 새 땅에 물을 댈수 있는 관개건설을 전망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양수체계를 자연급수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개기술개건공사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있는 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힘쓰고있으며 도처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면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도 충족시키고있다.

농촌에서 종합적기계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품이 많이 드는 작업과 경사지, 산간지대에 맞는 농기계들을 비롯하여 현대적농기계들을 생산공급하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농촌에서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더 잘 짓도록 하려고 한다.

화학비료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더 많은 화학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생산공급하고 생물비료, 식물성장조절제도 적극 장려하며 생물농약과 살초제도 많이 받아들이게 될것이다.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 높이고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는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농장대학, 고등농업전문학교를 더 많이 꾸려 농업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그리고 농촌의 전기화, 수도화, 뻐스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농촌마을의 중앙난방화, 가스화를 실현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 차이를 없애게 될것이다.

또한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해나가는것이다.

우리는 농업생산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며 경영활동의 계획화, 조직화수준을 강화해나갈것이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튼튼히 꾸리고 국가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노는 역할을 계속 증대시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앞으로 점차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소유의 농장으로 전환시켜나갈것이다. 전인민적소유로 단일화하는 사업은 군을 단위로 하여 진행하되 그 형태와 방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와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게 하게 된다.

우리는 당면하여 농촌테제 발표 30돐이 되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우리는 다수확군쟁취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그 대렬을 늘여나가며 논발 정보당 알곡을 8톤이상, 나아가서는 10톤이상씩 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리고 땅을 알뜰히 보호관리하는 한편 간석지를 개간하고 야산과 공한지를 찾아 부침땅을 늘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또한 농업과학부문에서는 록색혁명을 다그쳐 우량품종들을 계속 개발하고 생물학과 생리화학,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기초과학과 새 농업과학분야를 개척하여 농업생산의 집약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은 당의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될것이다.

지금 전국각지의 농업근로자들은 전국농업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당면한 영농작업을 질적으로 하여 올해에 또다시 만풍년을 마련할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농업지도기관일군들은 올해 농사를 본때있게 짓고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독자란

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

저는 흑룡강성 녕안시 발해진 발해조선족중학교 3학년 1반에 다니는 학생 전영옥입니다.

저는 방과후와 일요일만 되면 잡지 《금수강산》부터 펼쳐들군합니다.

잡지를 보면서 많은것을 알고 가슴에 새기게 되였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본것이 국제조선통일촉진위원회 제2차대회, 범민련, 범청학련들에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벌리는 활동 등등 입니다.

이런것을 볼 때마다 통일이 당장 실현되는듯 하고 통일에 대한 확신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통일된후 더욱 강해지고 더욱 커질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가 한껏 부풀어오릅니다.

그럴수록 이 거대하고 보람찬 통일위업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나의 힘과 정성을 보탤수 없겠는가에 대하여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업에 저의 몸과 마음도 기꺼이 바쳐갈수 있겠는지?…

저는 그에 대한 방도를 찾아보고 나의 생활에 구현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과 우리 동포학생들에게 지침이 될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실어주기 바랍니다.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 발해진 발해조선족중학교 3학년 1반 학생
전영옥

단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운명이며 해내외의 전체 우리 동포들의 운명입니다.》

누구를 물론하고 사람은 그 어느 한 민족에 속하며 그 민족의 한개 성원으로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나라의 자주성과 륭성발전이 없이는 한 민족, 한 개인의 행복한 생활과 그 어떠한 영예도 생각할수 없으며 창창한 미래는 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각계각층을 이루는 매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근본리익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민족의 영예와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민족의 매개 성원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이다. 민족이 있어도 조국을 잃으면 개인은 상가집 개처럼 천대받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때문에 조국의 운명은 곧 민족의 운명이며 개인의 운명인것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또 해외에 있건 모두가 조국통일위업에 떨쳐나서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개인의 과거를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11중학교
교원 김점칠

단 오

단오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 인민들이 쇠는 민속명절이다.

단오는 음력 5월의 첫 닷새째 되는 날인데 단오란 말도 거기에서 유래한것이다.

단오는 우리 나라에서 초여름에 쇠는 민속명절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이다.

옛날 마한사람들이 5월에 씨붙임이 끝나면 다가오는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날 하루를 즐겁게 쉬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풍습은 우리 나라 조상들이 옛날부터 서로 화목하고 명랑하게 살아왔음을 말해주고있다.

단오날에는 명절을 즐겁게 쇠기 위하여 남자들은 씨름놀이를 하고 녀자들은 그네와 널뛰기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씨름은 남자 둘이 서로 맞잡고 넘어뜨리기 위한 놀이로써 힘과 지혜를 겨루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온 고을이 다 모여 씨름판을 크게 벌리군하였는데 여기에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황소를 상으로 주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그네는 커다란 나무가지나 그네대에 바줄을 매고 그 줄에 올라타 구르면서 높이 달아맨 방울을 찰내기를 하는것인데 제일 높은곳의 방울을 차는 사람이 1등의 영예를 지닌다. 그네뛰기에는 둘이 타는 쌍그네도 있다.

또한 단오날에 특별히 해먹는 명절음식이 있다. 단오를 수리날이라고도 하면서 쑥을 가지고 달구지바퀴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밖에도 단오날에는 조찰떡, 설기떡, 녹두지짐 같은 음식도 많이 해먹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속가운데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풍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국가적시책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는 단오를 초여름의 민속명절로 즐겁게 쇠고있다.

본사기자

널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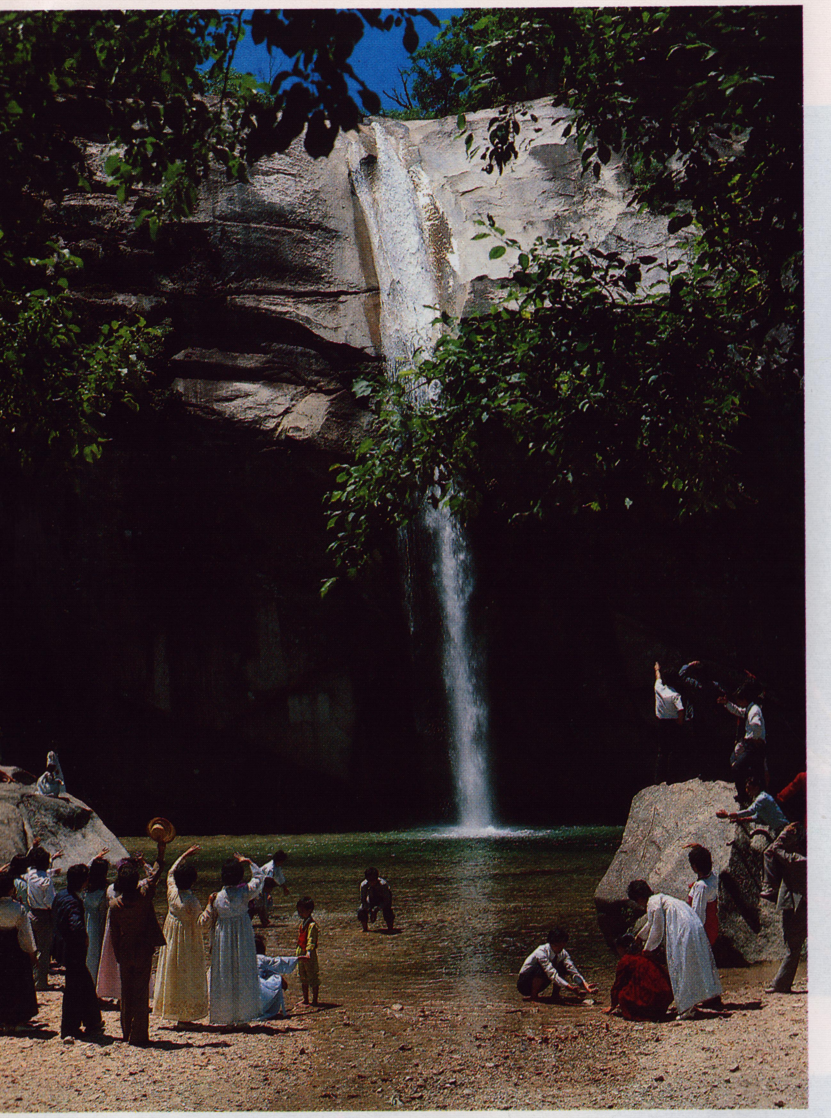


녀성들이 즐겨 찾는 그네터



씨름경기의 한 장면





경치구경도 좋아



어린이들의 《무술》놀이



윷놀이

사진 박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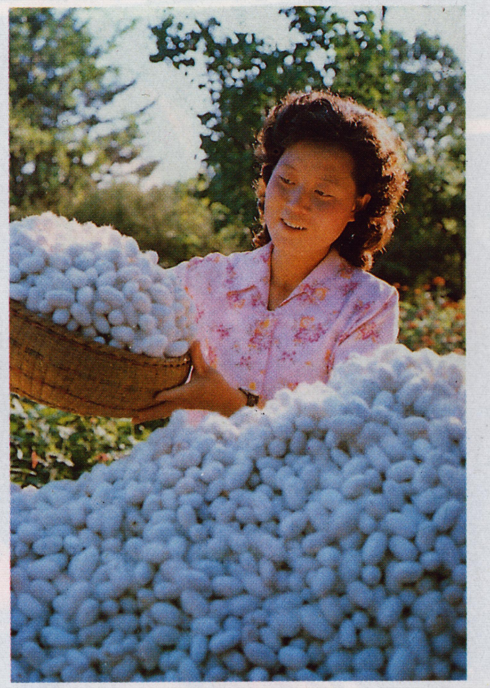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



청천강합영회사



원료기지 뽕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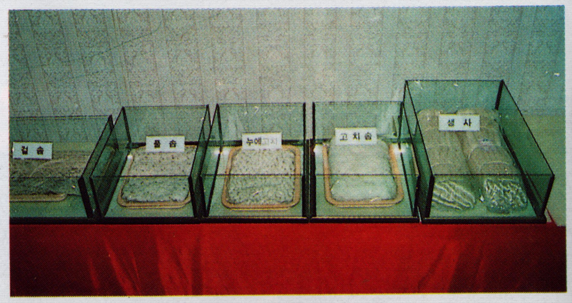
누에고치풍년



생산된 명주실을 타래로 만들고있다 (재조작업반)



삭서공의 긍지



생산된 견본들



품평회를 자주 진행한다

사진 리히철

완성작업반에서



자강도 희천시를 감돌아 흐르는 청천강기슭에는 6층짜리 아담한 건물이 자리잡고있는데 이것이 청천강합영회사이다.

연건평 1만 2천여평방메터에 달하는 이 회사는 누에고치를 가지고 명주실을 뽑는 제사공장이다.

회사는 1988년 9월에 조업하였는데 총련산하 아스끄주식회사와 합영하고있다.

합영회사 부리사장으로 있는 문홍선은 전 총련부의장이였던 문동건의 아들로서 조국의 륭성을 위하여 많이 기여하고있는 애국적인 상공인이다.

회사는 누에고치를 선별하고 삶고 명주실을 뽑는 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이 완전히 자동화되여있다.

회사가 조업한 첫해부터 수출품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자강도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산간지대인 자강도에서는 산골농사를 잘하는것과 함께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뽕밭을 대대적으로 늘여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는것이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심고리라고 하시면서 뽕밭을 전망적으로 1만정보이상 확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도내 인민들은 그후 도처에 뽕밭을 조성하고 선진적인 비배관리방법을 도입하여 뽕나무를 실하게 키웠으며 거기서 해마다 질좋은 뽕누에를 많이 생산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원료기지가 가깝고 물이 좋은 희천의 청천강가에 합영회사를 짓도록 터전을 잡아주시고 합영회사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던것이다.

이 회사의 실은 우선 굵고 가는것이 없이 고르롭고 마디점이 없으며 색갈이 곱고 부드럽고 강심도가 좋은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실의 질이 높은것은 기대공들과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기때문이다. 그리고 희천지방의 수질상태가 아주 좋은것이다. 그 물은 비단실생산에 적합한 성분을 가지고있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청천강합영회사의 제품은 오늘 국제무역계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일본의 어느 한 상인은 이 회사의 제품을 써보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자기에게만 달라고 제기하였으며 홍콩, 이딸리아, 벌가리아의 실업계인사들도 이 회사와 합작할것을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천강합영회사 부리사장인 문홍선을 접견하시고 회사의 운영정형을 료해하시였으며 그의 애국활동을 치하하시였다.

회사는 조업이래 능력을 여러차례 확장함으로써 생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였으며 지난해에는 조업당시에 비해 생산이 1.5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합영회사는 앞으로 여러가지 생산공정을 더 꾸려 1차가공품인 명주실뿐아니라 견양말과 견양말바지, 견샤쯔 그리고 수백만메터의 고급견직물도 생산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운봉

고구려의 교예

교예예술은 우리 나라에서 매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 뚜렷한 증거를 남기기 시작한것은 고구려시기부터이다.

특히 고구려사람들이 무덤의 벽화들에 남긴 교예장면그림들은 아직도 생동하게 남아있어 교예력사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와 같은 력사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가장 인기있는 교예종목은 말타기교예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예로부터 말을 잘 기르고 다루었다. 때문에 주변나라들에서는 고구려의 말을 매우 빨리 달린다고 하여 《천리마》, 과일나무 아래로도 재치있게 잘 빠져나간다고 《과하마》라고 부르며 부러워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이처럼 날랜 말을 타고 달리며 말등을 넘나들거나 말배에 붙어 몸을 숨기는 동작, 달리는 말우에서 공이나 봉을 높이 올리던지고 받는 등 다양한 교예들을 진행하였는데 이런것을 두고 마상재라고 불러왔다.

마상재와 함께 칼부림교예도 많이 하였다.

고구려의 칼부림교예는 칼로 피부를 찌르거나 베는 등 렵기적인것이 아니라 민첩한 손재주를 보여주면서도 기묘한 검술을 키우기 위한 건전한 교예였다.

고구려시기 무덤벽화에는 한사람은 칼을 쥐고 상대편의 요진통을 찌르러 앞으로 내밀고 다른 사람은 칼을 곧추 세우고 그것을 재치있게 막아내는것과 같은 칼부림교예장면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이런 칼부림교예들은 검술을 재현한것으로써 용감성과 민첩성을 키우는데 의의가 있는것이였다.

고구려시기 교예에는 손재주가 또한 유명하였다.

무덤벽화에는 한 교예사가 5개의 공과 3개의 짧은 봉을 공중에 련속 엇바꿔 올리던지는 그림과 여러개의 바퀴를 올리던지는 그림들도 있다.

교예력사에는 형태가 서로 다른 여러개의 물체를 공중에 올리고 받는 종목은 근대에 생겨난것으로 되여있으나 우리 선조들은 이미 고구려시기에 이처럼 어려운 교예종목을 창조하여 재치있게 수행하였다.

긴 나무다리를 두다리에 련결시키고 중심을 잡는 나무다리교예와 두팔과 두다리로 독특한 기교를 부려 사람들을 즐겁게 하여주는 교예들도 좋았지만 호선무는 특별히 인기가 있었다.

큰공우에 올라서서 그것을 굴려가며 온갖 재주를 부리며 춤을 추는 호선무는 고구려사람들이 어찌나 재치있게 하였는지 이웃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옛기록이 있다.

벌써 그 시기에 반주음악이 있어 교예의 볼맛을 더해주었다는 자료들도 있다.

고구려교예는 말타기와 칼부림 등 무술단련을 중시했던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인 생활을 체육과 예술로 조화시킨 건전한 교예였다.

탄전의 《가족합창단》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는 한가족으로 무어진 예술소조가 있다. 탄부들은 그를 《가족합창단》이라고 부른다.

《가족합창단》의 단장이기도 한 가장인 장인호는 나라잃은 그세월에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14살때부터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다. 온돌수리, 땜질, 삯짐지기 등 그가 해보지 못한 일이란 거의나 없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수모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도 그는 저녁이면 울적한 기분을 달래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군하였다. 노래는 그의 슬픔과 울분을 가시는 《벗》이기도 하였다.

8.15해방을 평양에서 맞이한 그는 그후 생활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였다. 가정을 이루고 제집에서 옥동자도 보았다. 해방후의 행복한 나날을 통해 그는 조국의 고마움을 잊을수 없었다. 그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조선인민군 입대를 탄원하였고 군악단에 소환된후에는 노래를 불러 전사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제대될 때에는 평양이 아니라 안주탄전으로 자원진출하였다.

음악에 소질이 있었던 그였기에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면서도 노래를 불렀다. 그후 탄광예술소조책임자로 활약하게 된 그는 탄부들을 석탄생산에로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예술소품들을 창작하여 문화회관무대에 올렸다. 노래속에 일이 흥겨우니 석탄생산은 높아갔다.

1957년 8월 어느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당시 안주탄광)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이곳 탄광에서 준비한 예술소품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그리고 장인호를 가까이 부르시여 힘든 일을 하는 탄부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명랑하게 생활하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면서 그에게 예술소조활동을 한번 본때있게 해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랑과 믿음은 그의 가슴을 불태웠다.

장인호는《가족합창단》을 조직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는 안해와 세 자식을 포함한 5명이 출연하는 예술소품을 준비하였다. 그는 들끓는 막장에서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였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가족이 모여 노래와 춤을 련습하였다. 모두가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배웠다. 그때 장인호는 손풍금, 안해 백정화는 장고, 아들 장태호는 가야금을 연주했고 두 딸은 노래와 무용을 담당했다.

아직 그들의 예술기량은 부족하였지만 탄부들의 소박한 로동생활이 그대로 반영된것으로 하여 인기를 끌었다. 공연때마다 탄부들은 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기량은 더욱 높아가 《우리 탄광 가족합창단》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세월은 흘러 장인호의 자녀들도 7남매로 불어났다.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가족합창단》에 들어가 25명으로 늘어났다.

그는 자식들을 다 탄전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남포와 청진 등지에서 온 다섯 사위와 두 며느리들도 모두 탄광에서 일하게 되였다.

장인호는 예술소품을 더욱 특색있고 다채롭게 준비하여 공연하였다. 시형과 제수의 2중창, 손자와 손녀의 대화시, 할아버지의 손풍금독주 등 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르는 각이한 년령기의 사람들이 출연하는 다채로운 종목들은 탄부들의 인기를 끌었고 절찬을 받았다. 그들의 기량도 높아져 공연수준은 전문예술가들을 무색케 할 정도였다.

《가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온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나라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나갈 한마음으로 더 얽혀졌다.

한두달도 아닌 30여년을 그들은 일하면서 노래를 불러왔다.

그들이 지금껏 진행한 공연건수는 1,300여회나 된다.

그들의 노래소리는 탄광막장과 로동자문화회관에서도 울렸고 평양의 대극장무대에도 울렸다. 1990년에 진행된 전국근로자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에서는 1등으로 평가되였다.

세월이 지나 장인호도 70고령의 할아버지가 되였지만 《가족합창단》의 《전통》은 자식들에 의해 계속 꽃피고있다.

이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주탄전가정만이 아닌 우리 나라의 여러 가정들에도 있다.

로동은 우리 나라에서 그대로 노래이고 기쁨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로명준



노래소리 그칠새 없다

청수동혁명사적지

청수동혁명사적지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1912년부터 1920년까지의 사이에 활동한 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곳이다.

이 사적지는 평안북도 삭주군 남사로동자구(1910년대에 평안북도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에 있다.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력사적인 청수동회의를 진행하시였으며 선진사상보급과 민중결속을 위한 조직선전활동, 무장활동을 지도하시였다.

오늘 이곳 사적지에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적비가 세워져있고 청수혁명사적관이 정중히 꾸려져있다. 그리고 사적건물들이 원상대로 보존되여있다.

1917년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였다가 1918년 가을 감옥에서 나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쇠약해지신 몸을 추세울 사이도 없이 또다시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청수동혁명사적지의 일부

선생님께서는 감옥에서 구상하신대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시기 위하여 그해 11월에 이곳에 오시여 청수동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평안북도안의 조선국민회조직대표들로부터 자기 조직의 형편을 통보하는 간단한 보고가 있은 다음 앞으로의 활동방침을 토의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일제의 무단통치가 절정에 이르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상세히 분석하신 다음 로씨야의 사회주의10월혁명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파괴된 조선국민회를 시급히 복구하여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조직성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명백한 투쟁 방향과 방도를 찾고 신심을 가지고 반일투쟁에 나서게 한 옳은 방침이였다.

이처럼 청수동회의는 파괴된 조직을 빨리 복구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사적지에는 청수동회의장소인 《ㅁ》자형의 기와집이 그대로 보존관리되고있다.

선생님께서는 청수동에 오실 때마다 이 집의 뒤채에 있는 웃방에 계시면서 인민대중을 계몽시키고 동지들을 규합하는 사업을 벌리시였다.

1917년 4월에는 이 집에서 조선국민회 평안북도조직을 무어주시였고 1920년 여름에는 청년단조직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지금 이 집에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키낮은 책상과 벼루, 붓, 연적 등이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청수동회의장소로 가는 큰길 우측 남산기슭에는 일신학교가 있다.

한채의 기와집으로 되여있는 이 학교를 찾으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과 나라찾을 큰뜻을 키워주기 위하여 주로 륜리도덕교양에 치중되여있는 학교의 교육내용을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으로 고치도록 지도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선생님께서는 몸소 학생들에게 도수체조, 목봉을 배워주시고 륙상경기, 군사유희, 등산경기 등을 조직하시여 학생들의 몸을 튼튼히 하고 인내력과 용감성을 키워주시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는 물론 노래도 몸소 배워주시면서 애국사상을 키워주시였다.

이 일신학교에는 당시의 사적물들인 책상과 의자, 풍금과 벽시계 등이 보존되여있으며 학교앞마당에는 철봉과 씨름터가 있다.

이곳 사적지에는 이밖에도 한 농민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반일투쟁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신 사적이 깃들어있는 밤골농민의 집, 청수동인민들을 반일구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반일강연을 하신곳, 동지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신 약수터, 1920년 여름 청수동조직성원들에게 청년단조직을 확대강화하면서 무산자대중속에서 반일애국사상교양과 선진사상교양을 잘하며 특히 무장대후원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룡소바위터가 있다.

그리고 일신학교사업을 지도하시던 때에 학교앞마당에서부터 산봉우리까지의 등산경기를 조직하시여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시키는 한편 그들에게 나라 찾을 슬기와 용맹을 키워주신 결승봉이 있다. 오늘 결승봉에는 헌시비 《빛나라 결승봉이여!》가 세워져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업적이 깃들어있는 청수동혁명사적지는 오늘 우리 인민들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5)

사회력사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저절로 력사의 주인이 되여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인이 되자면 우선 사상적으로 각성되여야 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이것을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라고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굳게 뭉칠수록 더욱더 힘있는 력량으로 되며 그만큼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그런데 인민대중은 저절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것이 아니다.

지난날 인민대중은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도 오래동안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뭉치지 못하였다. 평생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것을 타고난 팔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오늘도 자본주의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우자면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사회적운동을 물론하고 거기에는 대중을 깨우쳐주고 묶어세우는 선각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에 지도가 없는 사회적운동이란 있어본 일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마을에서 무슨 자그마한 일을 하나 꾸미자고 해도 그 일을 먼저 선도해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회를 개조하고 력사를 전진시키기 위한 운동이 지도가 없이 되겠는가.

지난날의 사회력사적운동에는 다 지도자가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크고작은 농민운동,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은 지도자들의 이름과 련결되여있다.

그러나 지난날에 있은 인민들의 사회력사적운동이 다 옳바른 지도를 받은것이 아니다. 지난날의 거의 모든 사회력사적운동은 많은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는데 그 주되는것은 지도의 약점과 제한성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 모든 운동들은 실패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던것이다.

대중에 대한 지도문제는 어떤 사회력사적운동에서나 제기되지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운동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이 혁명운동이 그 어떤 혁명운동보다 인민대중의 높은 의식성과 조직성을 요구하는 운동이고 또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벌어지는 운동이기때문이다.

공산주의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 높은 발전단계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자면 인민대중의 의식수준과 조직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건설하자면 반동통치배들과 착취계급의 강한 반항에 부닥치기 마련인데 이러한 반항을 물리치고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운동에 대한 옳바른 전략전술적지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하며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자면 과학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빠리꼼뮨의 력사적교훈을 놓고 보자.

프랑스 빠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은 반동통치배들이 프로씨야 침략자들에게 50억프랑의 배상금을 물며 알사스와 로렌 지방을 넘겨주기로 한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인민자신이 조직한 국민자위대를 무장해제하려고 한것을 계기로 1871년 3월 18일 혁명을 일으켰다.

혁명의 결과 3월 28일에는 정권을 빠리국민자위대중앙위원회가 틀어쥐게 되였으며 빠리꼼뮨이 선포되게 되였다. 꼼뮨은 꼼뮨위원회를 조직하고 혁명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였으며 반혁명세력의 반항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반동들의 공세를 끝내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꼼뮨은 72일동안 존재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였다.

빠리의 인민들이 그처럼 영용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권을 지켜내지 못한것은 그들이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이 빠리꼼뮨이 남긴 가장 중요한 력사의 교훈이다.

빠리꼼뮨은 여러 파로 분렬되여있었으므로 빠리의 인민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지 못했고 투쟁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없었다. 빠리의 로동계급은 지방농민들과 합세하지 못하고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였다. 빠리꼼뮨은 결국 옳은 지도가 보장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하고말았던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일부 나라들의 실례는 우리들에게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깨우쳐주고있다.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야 하며 령도의 계승성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탁월한 지도자를 내세우지 못하였거나 당이 약화되여 지도자와 당이 인민대중과 멀어지고 분리되게 될 때 사회주의위업을 말아먹게 된다는것이 인민들이 찾은 력사적 교훈이다.

이것은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지 못할 때 인민대중은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한 박사의 이야기

몇해전 평양에서는 사회과학원의 리행호박사와 미주에서 온 한 해외동포와의 상봉이 있었다.

그들은 철부지나이에 일본땅에서 헤여졌다가 40여년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가까운 혈육이였다.

그런데 쌓이고쌓인 회포를 나누기에 앞서 동포는 이런 말부터 하였다.

《난 비행기에서 내리자바람으로 안내원선생에게 너를 찾아 만나고 싶은 의향을 표시했다.

이름은 리행호, 1941년 8월 4일생, 귀국자.

내가 명백히 아는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안내원선생이 〈아, 리행호박사선생 말입니까?〉라고 하면서 날 어리둥절하게 만들더니 글쎄 네가 오래전부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관심속에 있다고 하는것이 아니겠니. 이 땅의 하많은 사람들중에 네가 어떻게 그런 행운까지?! 난 믿기 어렵다.》

《형님, 그건 사실입니다.》

《정녕 그게 사실이라면 행호, 어서 다 이야기해다오.》

행호는 달리는 차안에서 지나온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으며 동포의 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 × ×

1960년 9월 행호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역땅에 있었다.

일본학교에서 소학교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마친후 행호는 대학공부를 더 시킬 형편이 못되여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슬하를 떠났다.

그가 믿고 찾은곳은 어머니조국의 품이였다.

그는 조국에 와서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싶다는 소원부터 말했다.

해방전 경상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다가 징용으로 끌려가 온갖 수난을 다 겪은 한 재일조선동포 아들의 희망은 고스란히 성취되였다.

그런데 행호는 강의나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리해할만큼 아직 우리글에 능하지 못한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한 강의가 끝난뒤 행호가 복도의 휴계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있는데 뒤에서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였다.

행호는 얼른 뒤를 돌아다보았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것이였다.

옷차림으로부터 학습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더없이 겸손하고 소박하신 그이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있던 행호였으나 이런 기회를 가져보기는 처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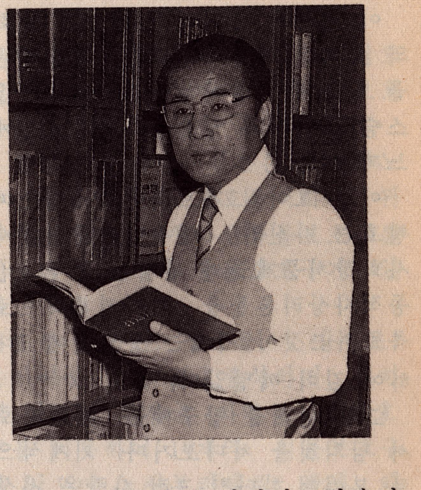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행호를 바라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는 조국에 돌아온지 얼마나 되는가, 어느 지방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 부모들도 다 귀국하였는가를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그이의 인품에 이끌려 행호는 이역에서의 나날과 귀국의 경위를 허물없이 말씀올렸다.

행호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이국땅에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더는 그런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을것입니다. 기를 펴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당과 조국을 위하여 힘껏 배웁시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이야기하라고, 힘자라는대로 도와주겠다고 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되였다. 그이께서는 행호의 손을 힘있게 잡으시며 미소를 보내시고 강의실로 향하시였다.



행호는 분발하여 열심히 학습하였다.

그이께서는 행호를 자주 몸가까이 부르시여 건강은 어떠한가, 기숙사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식사는 잘하는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셨다. 그리고 학습장들을 펼쳐보시며 틀린 글자를 바로잡아주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습지도도 구체적으로 해주시였다.

행호는 그이의 끊임없는 보살핌속에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감정과 사회과학연구에서 주체적 관점과 견해를 세워나갔다.

1964년 3월, 행호는 대학졸업증을 받아안았다.

희망대로 그는 과학연구기관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였다.

그곳에서 일한지 얼마 안되던 어느날 행호는 몸소 시간을 내시여 찾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것만큼 허심하게 모든것을 새로 배운다는 립장에 서야 하며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자면 투지와 정열과 인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였다.

행호는 열정과 탐구의 나날을 바쳐 완성한 첫 론문을 발표하였다. 론문은 《로동신문》에 실리였다.

사회적반향이 어떻겠는지 행호가 은근히 가슴을 조이고있는 때에 그이께서 론문을 먼저 보아주시고 그를 친히 부르시여 처음 쓴 글인데 아주 잘 되였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이 과분한 평가에서 행호는 과학의 요새를 점령해나가는 걸음걸음을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스승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이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행호는 자신의 전공연구분야에서 사회정치문제들과 관련한 온갖 반동적사상리론들을 과학리론적으로 폭로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로서 남의것을 쳐다보거나 기계적으로 본따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상적으로 자기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며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 방해물이 되고만다는 그이의 명언도 심장에 새기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행호를 여러번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그의 과학연구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었다.

년대와 년대를 따라 이어지는 이런 사랑속에서 이름없던 한 귀국청년은 과학계의 권위있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자라났다.

행호는 150여건의 론문을 집필하였다. 그중 여러 론문들은 이미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

그는 여러 국제학술토론회의 연단에도 나섰다.

준박사학위를 거쳐 그가 박사학위칭호를 받은것은 1987년이였다. 그의 박사학위론문은 《현대일본독점자본주의의 구조와 위기》였다.

× × ×

박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동포는 감회에 젖어 말하였다.

《수난의 세월에 할아버지는 〈커다란 행복〉을 기원하여 너의 이름을 행호라 지으셨지.

위인의 품에 안기더니 너는 그 이름에 깃든 뜻을 현실로 꽃피웠구나.》

그날 동포는 은혜로운 품속에서 성장하여 행운을 누리고있는 행호의 일가족과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지금 리박사는 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소장의 중임을 맡아보고있다.

이 연구소는 과학연구사업과 국제적인 학술적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행호가 귀국한지 10년후에 조국의 품에 안긴 그의 어머니 안경시는 지금 75살의 정정한 몸으로 미더운 자손들에 에워싸여 만년을 즐기고있으며 헬싱키에서 있은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으로 참가하였던 그의 안해 리문재는 귀국후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외국문도서출판사의 기자로 일하면서 준박사로, 공훈기자로 되였다.

어느 한 나라에서 열렸던 학과경연의 금메달수상자인 맏딸 리화주는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무역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금성2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딸쌍둥이 리화영, 리화경은 김형직사범대학의 외문학부, 음악학부에서, 아들 리충혁은 금성2고등중학교에서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있다.

본사기자 려순옥



단란한 가정에서

조선속담

• 뜬쇠도 달면 무섭다

더디게 단 쇠는 식을 때도 오래 간다는 뜻으로 성격이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도 일단 성을 내거나 결기가 날 때는 당하기 어렵다는것을 이르는 말.

• 빨리 다는 화로가 빨리 식는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그 흥분이 오래가지 못하고 인차 식어버린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워야 목적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음을 비겨이르는 말.

• 소경 제 닭 잡아먹기

리익을 보는줄로만 알고 한 일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 하는 말.

• 이웃사촌

서로 남남간이라고 해도 벗으로 삼아 화목하게 지내면 친척과 같아짐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버선신고 발바닥 긁기

어떤 일을 애써하나 요긴한데를 바로 건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와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

우리 나라의 자연보호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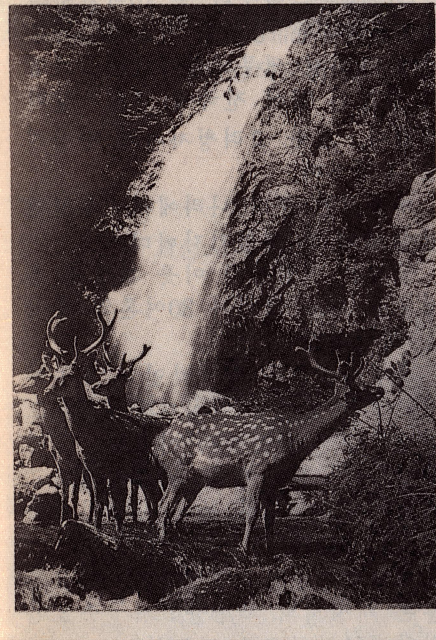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이 푸르고 물이 맑다 하여 《산자수명》의 나라라고 불렀으며 산과 강이 아름답기가 비단필에 수를 놓은것 같다고 하여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온다.

그 어디에 가나 나무들이 우거지고 온갖 짐승들이 욱실거리며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포괄범위가 매우 넓은 자연보호구와 부문별 보호구가 수많이 있다.

큰 자연보호구로서는 백두산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 오가산자연보호구, 금강산자연보호구, 묘향산자연보호구, 칠보산자연보호구, 구월산자연보호구가 있다.

백두산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된 보호구이다. 량강도 삼지연군의 정일봉, 소백산, 간백산을 중심으로 하여 쌍두봉, 무두봉, 베개봉, 청봉 등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이 특별보호구는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 위치하고있다.



폭포가에서

복잡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특이하고 다양한 식물상과 동물상이 펼쳐져있는 이 특별보호구에는 300여종의 식물과 수십종의 짐승류, 150여종의 새류들이 분포되여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호하게 된 조선범, 누렁이(말사슴), 사슴, 큰곰, 세가락딱따구리 등이 살고있다.

이 일대는 198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로 정해졌으며 이곳에서 국제적인 보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백두산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는 천연기념물들과 원시림들, 아한대바늘잎나무숲대와 높은산식물들, 갖가지 동물들이 득실거리는 대로천자연박물관으로 되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1,000년이상 자란 나무들과 원시림들이 많은 보호구로서 자강도 화평군에 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우리 나라 자연의 발전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연구기지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강산자연보호구와 묘향산자연보호구는 자연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여러가지 동식물자원이 풍부한 자연보호구로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과학연구기지로 되고있다.

칠보산자연보호구는 경치가 좋고 기상기후적특성과 식물상이 다양한 보호구로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이 자연보호구는 함경북도 명천군에 있다.

구월산자연보호구는 자연풍경이 매우 아름다우며 동식물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남부식물과 북부식물이 다 자라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이 자연보호구는 황해남도 삼천군, 안악군, 은률군에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 6개의 자연보호구와 함께 수십개의 부문별 보호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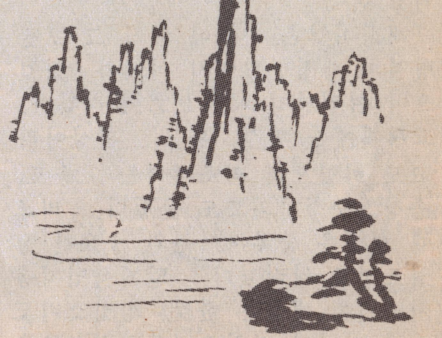
산양이나 사슴, 검은돈, 사향노루, 원앙새 등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설정된 천마산동물보호구를 비롯하여 14개의 동물보호구가 있다.

또한 황목단, 장군풀, 만병초, 송이버섯 등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설정된 부전군 차일봉식물보호구를 비롯하여 14개의 식물보호구가 있으며 노랑부리백로, 곽새, 왜가리, 바다오리 등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설정된 바다새번식보호구들이 6개 있다. 그리고 생복이나 밥조개, 산천어 등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설정된 4개의 수산자원보호구가 있으며 클락새를 보호증식하기 위한 보호구가 4개 있다. 이러한 보호구들은 자원량이 적거나 줄어드는 동식물들과 우리 나라에만 있는 희귀한 특산동식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해졌다.

자연보호구안에서는 나무채벌, 산과실 및 산나물 채취, 사냥, 산업시설건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연보호구들은 한결같이 로천자연박물관으로서, 과학연구기지로서의 자기 역할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개 성 시 (1)

개성시는 우리 나라 중부 서해안에 자리잡고있다. 북부는 황해북도의 금천군과 토산군, 서부는 례성강을 경계로 황해남도의 배천군, 동부는 림진강을 사이에 두고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경기도 련천군, 파주군과 잇닿아있으며 남부는 한강어구를 경계로 경기도의 김포시와 강화군과 마주하고있다.

지금의 개성시와 그에 속한 개풍군, 판문군은 북위 38도이남지역으로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5년동안 남조선의 리승만괴뢰통치기반에 있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1955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개성지구는 직할시로 있다가 1960년에 황해북도에 속하였던 장풍군이 개성시에 편입된후 행정체계상 도와 같은 급으로 되였다. 지금 개성시는 1개 시, 3개 군, 3개 읍, 1개 로동자구, 62개의 리, 20개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성시는 북부가 산지로 막혀있으며 남쪽이 바다를 향하여 열려져있으므로 다른 지방에 비하여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다. 1월 평균기온은 령하 5.9도이고 8월 평균기온이 24.7도이며 한해 평균강수량은 1,200여미리메터이다.

왕건에 의하여 918년에 건국된 고려가 수도를 철원으로부터 개성으로 옮긴후 약 500년동안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고있었으며 당시 아세아에서 널리 알려진 국제적도시이기도 하였다. 이때로부터 1396년 리조봉건국가가 수도를 서울로 옮긴후에도 개성은 리조말기까지 도급행정단위로서 중요시되였다.

개성지역은 시기에 따라 그 포괄령역과 행정단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 고려때에는 개경, 황도, 황성이라고도 하였으며 리조때에는 송도, 송경, 중경이라고도 불렀다. 리조때 개성은 중부서해안의 중요한 상업도시로 알려졌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개성은 한갖 상업소비도시에 지나지 않았으며 주변농촌은 락후한 농촌지역이였다. 그때 개성에는 생산적시설이란 별로 없었으며 주로 상점과 상업기관들이 많았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상인과 령세한 수공업자들이였으며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형편은 해방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전쟁시기 이 지역이 해방된후 곧 당, 정권기관들이 복구되고 력사적인 토지개혁도 실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시기인 1954년 12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개성시를 찾으시여 개성시가 나아갈 방향과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주석께서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조국통일념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남녘땅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여 북과 남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성시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튼튼히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개성시는 지난날의 보잘것없는 상업소비도시로부터 대규모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이 많이 일떠선 발전된 경공업도시로 전변되였다.

또한 개성시는 농업의 공업화와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해마다 과일, 남새, 고기 풍년을 마련하는 믿음직한 공급기지, 풍요한 사회주의문화농촌을 가지게 되였다.

올망졸망한 가게방들과 잡다한 상점간판들이 거리를 메우고있던 시의 중심부에는 10층, 15층 짜리 고층건물들이 규모있게 꽉 들어서고 거리들이 시원하게 열려졌다. 이와 함께 시주변농촌에는 지난날 가난의 상징이였던 오막살이초가집들이 말끔히 없어지고 다층문화주택들과 아담한 기와집들이 들어앉았으며 뻐스화, 수도화, 리병원화가 실현되여 농촌에서도 도시부럽지 않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방직공업은 개성시 공업에서 첫째가는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곳 방직공업은 방적과 직포, 염색과 날염, 완성 등 솜으로부터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과 기술이 완비된 종합방직공업으로 발전하였다.

경치좋은 송악산기슭에 해방전의 《소년형무소》자리에 대규모의 개성방직공장이 일떠섰다. 이 공장에서만도 면격자무늬천, 스프비날론혼방격자무늬천, 면무늬천 등 600여가지의 질좋고 무늬고운 천을 생산하여 우리 나라 곳곳에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내보내고있다.

방직공업에 토대하여 개성시에서는 비날론혼방천, 모직천, 데트론천, 면천 그리고 갖가지 격자무늬천을 가지고 300여종의 남자옷, 녀자옷, 어린이옷, 외투 등의 피복류와 120여종의 뜨개옷을 생산하고있다.

식료공업은 개성시에서 방직공업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개성시에서는 시안의 풍부한 지방원료를 가지고 장, 먹는기름, 당과류, 고기, 남새, 과일 가공품, 청량음료 등 100여가지의 식료품을 생산하고있다.

개성의 특산인 《고려인삼》과 여러가지 원료로 30여가지의 술을 생산하는데 특히 개성고려인삼술공장 제품인 삼로주, 인삼술, 수삼삼로주, 인삼단물 등은 대외적으로 이름이 있다.

개성시는 일용품공업도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수지, 목재 및 철제 일용품, 초물제품, 공예품, 도자기, 시계, 신발, 놀이감, 전기일용품, 부엌세간, 악기 등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특히 왕골과 짚으로 만든 주단, 방석, 방신, 바구니 등 70여가지의 초물공예품은 섬세한 기교와 아름답게 조화된 색무늬뿐아니라 가볍고 쓸모가 있어 전국에 널리 알려져있다. 또한 고려청자기와 반상기도 유명하다.

개성시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인삼재배 및 가공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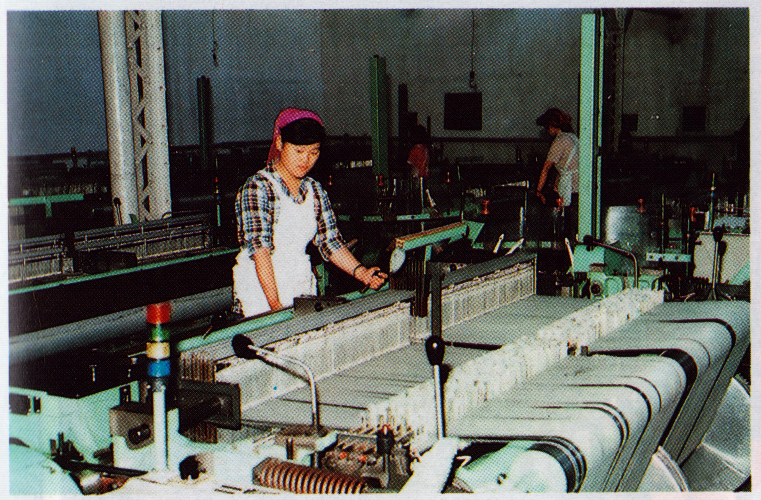
일제는 해방전에 이곳 개성에 홍삼포를 두고 해마다 30여톤의 홍삼을 략탈해갔다.

개성사람들은 창조적인 로동과 지혜로 전통적인 인삼재배업과 그 가공기술을 발전시켜 이름난 고려홍삼, 인삼탕, 꿀삼, 인삼정액, 고려선녀삼, 인삼차 등 수십가지의 인삼보약들을 생산하고있다.

초물공예품, 고려청자기, 인삼제품은 개성시의 특산물로서 중요한 외화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권오식


여름의 개성


개성방직공장 제1직포직장


개성수예수출품공장

개성시의 일부





박연협동농장 인삼포전을 돌아보는 외국인들



인삼가공제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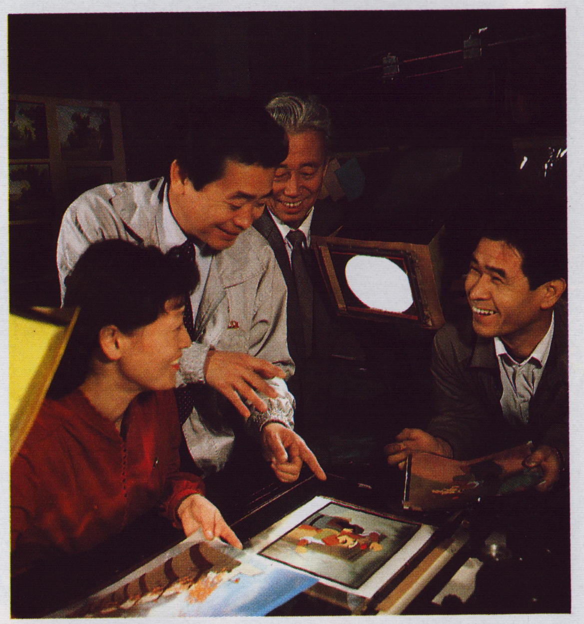
인삼술공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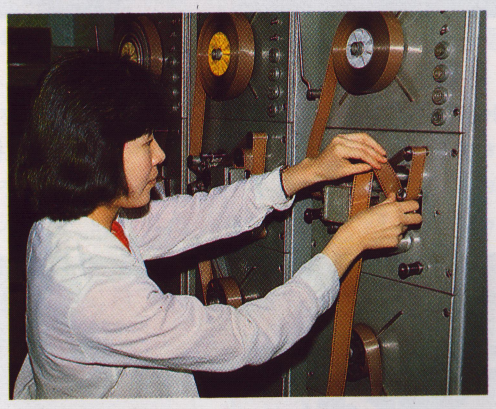
개성도자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사진 김휘

우리 나라의 아동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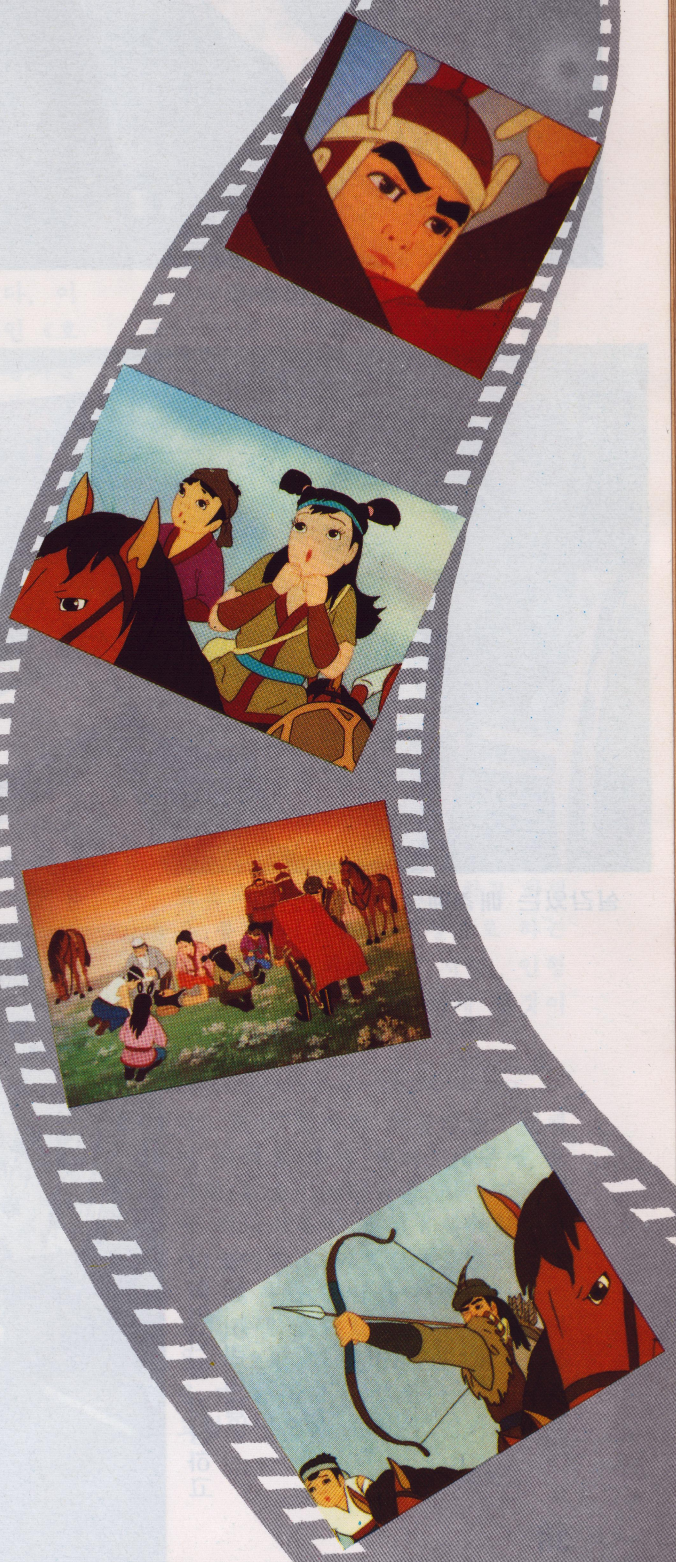
아동영화《소년장수》를 촬영하고 있는 만화영화창작단 성원들



록음작업의 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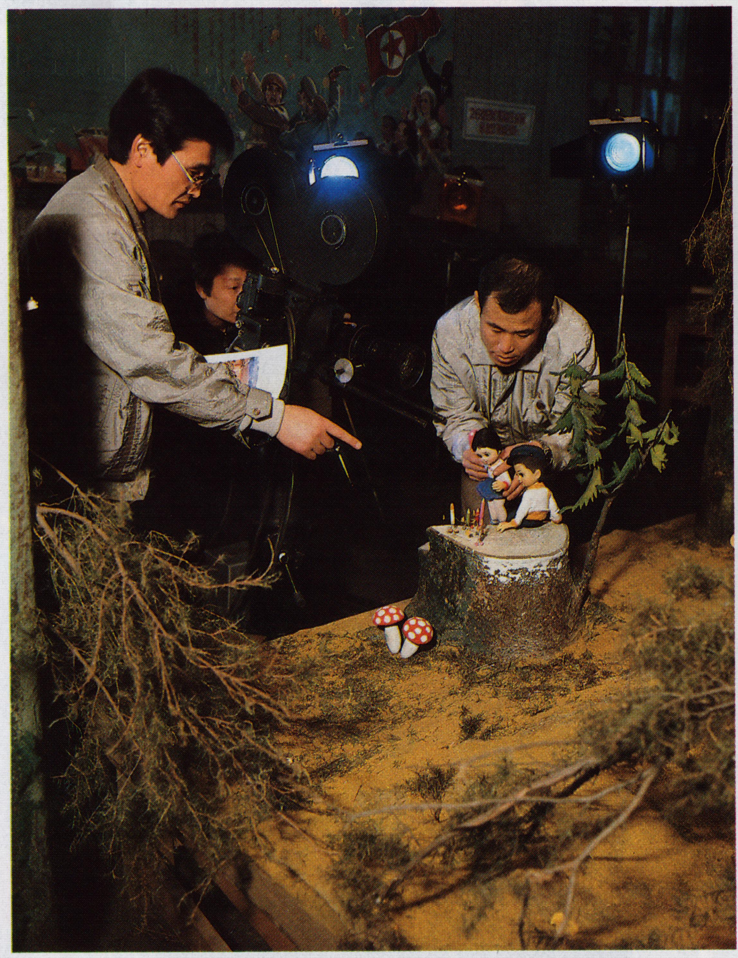


대사록음





편집작업



인형영화창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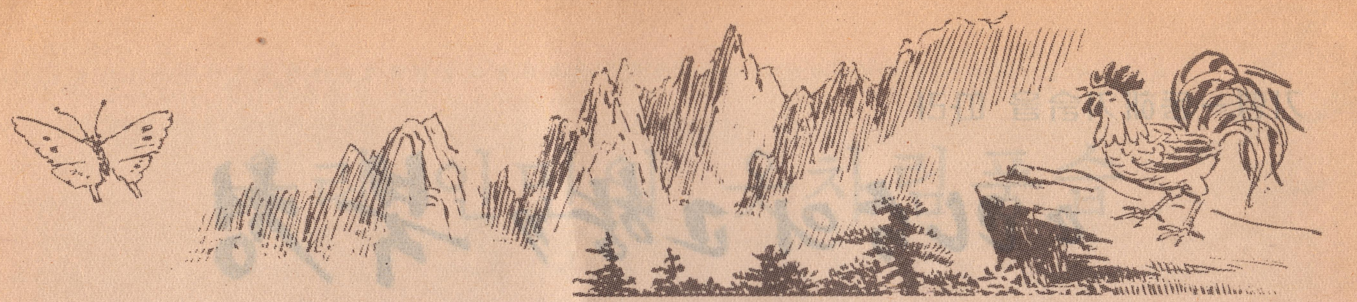


실감있는 배경예술을 창작한다



만화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 정명준



평양시 중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는 그림과 인형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영화를 만드는 아동영화촬영기지가 있다.

여기에는 만화영화창작단, 지형영화창작단, 인형영화창작단과 영화의 대사와 록음을 위한 배우실, 록음실 등이 있다.

창작집단은 100여명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아동영화창작단이 꾸려지고 첫 작품이 나온것은 1960년이였다. 아동영화 《신기한 복숭아》에 이어 《사슴과 호랑이》, 《흥겨운 들판》을 비롯한 많은 아동영화들이 제작되였다.

아동영화창작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아동영화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상도덕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아동영화의 대상은 인민학교 학생들이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아동영화를 어린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게 동화나 우화를 가지고 의인화의 수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창작가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지난 기간 아동심리에 맞는 수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냈다.

그중에는 《나비와 수탉》, 《두 장군이야기》, 《놀고먹던 꿀꿀이》, 《날개달린 룡마》와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도 있다. 이 아동영화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들려주신 동화이야기를 화면에 옮긴것들이다.

창작가들은 다부작아동영화들인 《소년장수》 38부, 《령리한 너구리》 39부까지 만들고 지금 그후 련속편 창작준비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이외에도 그들은 장편만화영화인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아동영화들인 《날개달린 룡마》, 《참외를 굴린 개미》, 《도적을 쳐부신 소년》, 《물오리심판원》, 《쇠도끼와 금도끼》, 《달나라 만리경》, 《토끼와 자라》, 《다람쥐와 큰쥐》를 비롯한 수많은 우수한 영화들을 내놓았다.

지난 기간 이곳 창작가들이 만들어낸 아동영화들은 500여편이다.

아동영화에서 인형영화, 지형영화들은 예민한 생활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데서 제한성이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제작에서 자금이 많이 들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는 만화영화의 비중을 높이고있다. 이름있는 아동영화들은 거의나 다 그림영화들이다.

우리 나라의 아동영화들에 대한 평도 좋다.

1985년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국제영화축전에서 아동영화들인 《날개달린 룡마》 1, 2부, 《참외를 굴린 개미》는 축전상을 받았고 1988년 평양국제영화축전에 내놓은 아동영화 《도적을 쳐부신 소년》은 홰불금상을 수여받았다. 1990년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 국제영화축전에서 아동영화들인 《물오리심판원》, 《쇠도끼와 금도끼》, 《참외를 굴린 개미》들은 우수작품으로 평가되였다. 이 영화들은 그때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일제히 상영되였다.

우리 나라의 련속편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는 구라파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알려져있다.

아동영화창작가들중에는 유능한 작가, 연출가, 촬영가, 미술가들이 많다.

우리 나라의 아동영화들에 대한 반영이 좋아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작도 많이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있으며 수많은 최신설비들도 마련해주고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인민학교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영화들을 비롯하여 지형, 인형영화들도 더 많이 창작하게 될것이다.

아시는지요?

건강에 좋은 오미자차

오미자는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짠 5가지 맛을 낸다고 하여 오미자라고 한다.

건강보약제로 널리 리용되고있는 오미자에는 여러가지 약성분들이 들어있다. 리그닌계화합물과 정유, 기름, 레몬산, 사과산, 포도산 등 여러가지 유기산과 많은 량의 비타민C, 당분, 탄닌 그리고 여러가지 광물질이 들어있다.

오미자는 이러한 성분들의 작용으로 호흡중추를 자극하고 중추신경계통의 반응성을 높이며 심장피줄계통의 생리적기능을 조절하고 피순환이 잘되게 하기때문에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가 빨리 풀리게 한다. 또한 힘살의 운동력을 세게 하며 시력도 좋게 한다. 때문에 오미자차나 오미자단물을 마시면 30분이 지나서부터 정신육체적활동능력이 높아지고 피로감이 없어지는데 이 효과는 몇시간 계속된다.

오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붉은 색소인 안호시안은 동맥경화증을 미리 막고 치료한다.

고혈압병으로 손발이 저리고 가

(56 페지에 계속)

기행 — 동해기슭을 따라

《과수의 고향》 북청



동해기슭을 따라 기행의 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사과고장으로 이름난 북청군에서 려장을 풀었다.

우리는 먼저 북청군 룡전리로 향하였다.

화창한 봄계절의 룡전리는 참으로 볼만하였다.

마을을 오붓이 품어안은 두릉봉기슭은 온통 꽃사태가 지듯 사과꽃이 만발하였는가 하면 골짜기는 골짜기마다 꽃구름으로 덮여있었다.

때마침 우리는 이곳에서 북청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였다.

그는 한그루의 사과나무앞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이곳 북청군이 과수업발전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게 된 뜻깊은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이 나무들이 바로 룡전리 사과나무의 조상이지요…》

그러면서 이 지방에 처음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주렁진 이 나무를 조상으로 하여 점차 사과나무가 퍼지게 되였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57년 초봄에 룡전리를 찾으시고 40도가 넘는 경사지의 계단식과수원에까지 오르시여 과수재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저물도록 이곳 일군들에게 계단식과수밭만들기와 나무모양만들기, 비료와 농약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선진적인 과수재배방법에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이곳 룡전리는 산기슭마다 과일나무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그윽한 과일향기로 차고넘치게 되였다.

그후 주석께서는 1961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군확대회의를 이곳 룡전리에서 소집하시고 북청군을 본보기로 나라의 모든 야산들을 과일동산으로 만들데 대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북청사람들은 야산은 물론 지어 45도까지 되는 경사진 땅에도 계단식과수밭을 만들어 온 군을 과수원으로 뒤덮이게 하였는데 과수면적이 해방전에 비하여 4~5배로 늘어났다.

북청회의 이후 사과나무며 복숭아나무가 없던 북방 량강도의 혜산이며 평북도의 창성에도 갖가지 과일나무가 산기슭을 단장하게 되였고 저 멀리 서해기슭의 백리과원으로부터 동해안의 안변의 감나무숲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그 어디에 가나 과일밭이 조성되여 탐스러운 열매가 무르익게 되였다.

북청군은 우리 나라 과수의 고향, 온 나라에 과수원을 새끼친 고장으로, 과일생산기지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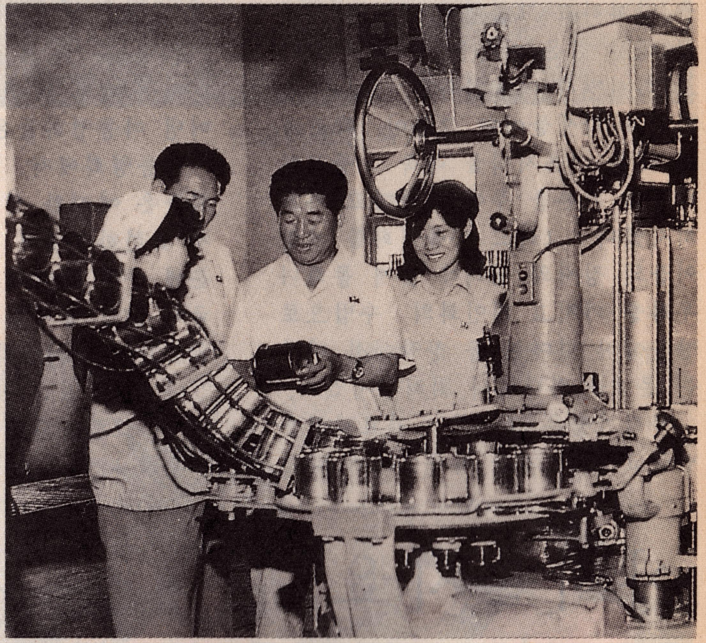
우리는 북청회의가 열렸던 룡전리문화회관이며 산비탈과수밭을 돌아보았다.

북청군은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서도 전국의 모범이였다.

이고장 사람들은 물매가 심한 과수원에까지 뜨락또르며 농기계들이 들어갈수 있게 길을 번듯하게 닦아 운반작업과 농약, 비료, 거름 주기를 비롯한 모든 과수작업을 기계로 하고있다.

그리고 낡은 과일나무관리방법을 버리고 북청식과일나무 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 방법을 비롯하여 과일나무와 토양관리, 과일나무 거름주기와 물주기, 농약뿌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였다.

또한 늙은 과일나무사이에 어린 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끊임없이 갱신하므로써 계속 꽃을 피우는 《청춘과원》으로 만들고있다.



북청과일가공공장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과수부문 전문교육을 받은 협동농장의 기술진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어제날 북청지방에서는 사과나무만 주로 심어왔지만 오늘은 배며 복숭아, 추리며 감까지 심어 과일구성도 다양해지고있다.

(42 폐지에 계속)

우리 인민의 옷차림풍습

우리 민족은 오랜 생활과정을 통하여 민족적 기질과 면모를 보여주는 고유한 옷차림풍습을 이룩하였다.

옷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발전하는 과정에 점차 종족적 및 민족적 특성을 가지게 되였다. 동시에 옷은 계급적차이와 성별, 년령의 차이 그리고 인민들사이의 력사문화적관계를 반영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예술적취미와 창작적재능도 보여주고있다.

조선옷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민족옷에는 우리 인민의 체질상 특성과 밝고 깨끗하고 우아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 정서와 기호, 그리고 온화한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과 생활조건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조선옷은 우리 선조들의 오랜 생활체험에 토대하여 만들어졌으며 끊임없이 변화발전되여왔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옷차림풍습에서 중요한것은 옷차림을 매우 다양하고 아름답게 한것이다. 사람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옷의 형태와 색갈을 잘 맞추어입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옷차림에서는 남자와 녀자옷의 구분이 명백하였으며 나이에 따라서도 옷의 색갈과 형태를 적합하게 선택하여 입었다. 대체로 아이들과 젊은 녀자들은 진하고 화려한 색갈의 옷을 입었고 늙은이들은 열은 옥색이나 회색과 같은 연한 색갈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더운 여름철에는 년령에 관계없이 연하고 밝은 색갈의 옷을 입었다.

우리 민족은 계절에 따라 옷을 여러가지로 갖추어입었다.

계절에 따라 그 차이가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것은 녀자저고리였다. 녀자들은 여름에는 홑적삼 또는 깨끼저고리를, 봄과 가을에는 겹저고리 혹은 누비저고리를, 겨울에는 솜저고리를 입었다. 이밖에 가을로부터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또는 겨울로부터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차렵저고리라 하여 솜을 엷게 놓은것을 입었다.

계절에 따르는 옷의 차이는 천의 색갈과 질 등에서도 나타났다.

봄에는 진달래꽃, 살구꽃, 배꽃을 비롯한 각종 꽃의 색갈과 나무잎이 움트고 푸르러가는 자연의 정취를 반영하여 꽃분홍이나 연보라, 연분홍 치마에 자주반회장을 놓은 노랑저고리를 입었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색갈을 택하여 잠자리날개와 같은 한산세모시나 열두새 가는 베 혹은 꾀꼬리색 같은 안동포로 치마와 적삼을 만들어입었다. 또한 가을에는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색과 같이 경쾌하고 청신한 느낌을 자아내는 색갈이나 단풍색갈 등 자연환경에 맞게 저고리와 치마 색갈을 맞추어입었으며 겨울에는 추위를 막는데 주의를 돌리면서 훈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짙은 색갈을 선택하여 옷을 해입었다.

계절에 따라 색갈고운 여러가지 비단이나 무명, 명주 등으로 옷을 만들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옷차림풍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옷차림을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는데 주의를 돌린것이다.

고려시기에 우리 나라에 왔던 송나라사람은 고려사람들이 옷차림을 깨끗이 하는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고려의 풍속이 모두 깨끗하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면서 아침일찍 일어나서는 목욕을 한 뒤에야 문을 나서며 여름철에는 여러번 목욕을 하며 옷을 깨끗하게 빤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고려의 어느곳에서나 볼수 있는 현상이였을것이나 그것이 자기 나라 풍습과 다른것이므로 특히 많은 주목을 끌었을것이다.

우리 민족의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또한 옷차림새에서 속옷을 중요시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깨끗한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관습으로 여겨온 우리 인민은 또한 아무리 바쁘고 일이 고되여도 저고리에 동정과 선을 달아 옷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였다.

삼국시기부터 전해오는 녀자저고리에 회장을 놓는 풍습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저고리의 깃과 도련, 소매끝, 겨드랑이에 회장을 놓아 입은것은 무엇보다도 옷을 깨끗하게 오래 입으려는데서부터 나온 풍습이였다. 또한 이것은 조선사람의 체질과 기호, 감정에 맞게 옷의 아름다움을 돋구려는데서도 생긴것이다. 우리 민족은 한가지 색으로 조선옷의 색갈에 잘 어울리는 여러가지 색천을 끝부분들에 덧대여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면서도 점잖고 아름답게 하였다.

언제나 단정하면서도 소박하고 검소하게 옷차림을 하는것도 우리 민족의 옷차림풍습에서 중요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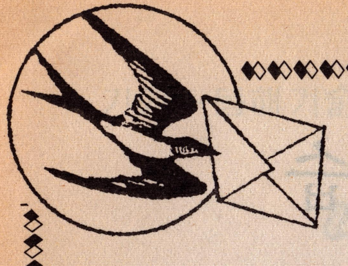
다른 나라의 력사책에도 고려의 옷차림은 항상 검소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언제 어디서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니는것을 응당한 례의로, 도덕으로 여기였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의 옷차림은 전반적으로 례절있고 단정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력사가 오래며 다종다양하게 발전한 고유한 조선옷의 좋은 점을 살려 산뜻하고 우아한 색갈의 아름다운 치마저고리를 많이 입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체질과 기호, 감정에 맞게 옷을 만들어 현대적인 양장도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금숙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나헤임시 바몬트거리 2251 함명규 앞

그리운 외삼촌에게

외삼촌, 그간 안녕하십니까?

외삼촌어머니와 집에 데리고있는 두 동생들은 잘 있는지요.

보내준 편지와 사진은 받았습니다. 병석에 계시는 외삼촌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은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외삼촌어머니는 1991년에 있은 첫 고국방문기간 잠간 만나보아서 면목이 있지만 외삼촌은 초면처럼 느껴지는군요.

어찌 그렇지 않겠나요. 강원도 철원에서 살던 외삼촌네가 1945년 10월 서울에 상품구입으로 떠난후로는 사진을 통해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요.

그때 세살난 맏아들 종화를 할머니에게 맡기면서 외삼촌은 이제 며칠내로 돌아오겠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후 나라를 두동강낸 38도선이 생겨 장장 50여년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가 그때 이런 불행을 상상이나 했겠나요.

세월의 흐름은 류수와 같아서 20대 홍안의 청년이던 외삼촌은 80고령이 다 되였고 여덟살나던 저는 환갑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리별이란 기쁨속의 리별도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슬픈것입니다. 국토의 량단으로 인한 리별은 우리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웃음을 눈물로, 기쁨을 슬픔으로, 희망을 절망으로 뒤바꿔놓았지요.

아들을 고국에 둔 외삼촌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나요. 생사를 알수 없어 애간장은 얼마나 태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과정에 세월은 흘러 우리들의 이마와 볼에는 여러 갈래의 깊은 주름살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리운 외삼촌, 외삼촌의 소식을 안 다음의 기쁨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나요. 지금은 또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그리움이 더해가는군요. 그래서 혈육의 정은 가를수 없다고 하는지…

고국에 있는 저희들은 근심걱정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덕군 남상계리에 있는 종화와는 서신거래가 있겠기에 더 적지 않습니다. 저의 셋째동생의 집에서 살고있는 어머니 함삼녀는 78살 나이에 비해 퍽 정정하십니다. 며칠전에도 우리 집에 들려서는 《미국에 있는 오랍동생의 병세가 호전되고있는지?》하면서 눈굽을 찍더군요.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가족친척들과 함께 후퇴했던 저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했고 제대후에는 안주탄전에 배치되였습니다. 중앙사로청학교, 남포공산대학을 졸업한 저는 탄광사로청위원장, 부갱장을 하다가 1970년부터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후방부 과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란 탄부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별로 한일없는 저에게 국기훈장 1급, 로력훈장을 비롯한 15개의 훈장과 메달을 수여해주었습니다.

저의 가정도 행복합니다. 안해와 막내딸 현옥은 편의봉사부문, 맏아들 기철은 석탄판매소, 맏딸 현숙은 의사로 일하고있고 사위는 사회안전원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식의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보다 좋아질 래일을 그리며 사는 우리 가정은 생활에서 더 바랄것이 없어요.

다만 소원은 조국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해외에서 살고있는 외삼촌네 가족들도 다 제 나라에 와서 함께 살았으면 하는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한들 혈육들이 갈라져 사는데서 오는 마음속 그늘은 지울수 없군요.

로년기의 향수는 더욱 절절한것입니다. 하물며 앓고계시여 고국방문의 기회를 미룬 외삼촌의 그리움이야 오죽하겠어요. 지금도 많은 해외교포들이 계속 고국방문의 길에 오르고있습니다. 외삼촌도 병이 나으면 친지들이 있는 이곳 고국땅을 다녀가십시오.

고국의 현실은 많이 변하였습니다. 도처에 수많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으로 사람들은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누구나 다 골고루 잘 살고있습니다. 서로 돕고 이끄는 조상전래의 미풍이 오늘 온 사회에 활짝 꽃펴나 전국이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였습니다.

외삼촌도 고국의 위력이 막강하고 해외교포들에 대한 고국인민들의 혈육의 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체험하게 되면 새 힘이 생기고 통일성업에 더 힘껏 떨쳐나설 각오도 새로와지리라 생각합니다.

외삼촌이 고국방문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남도 청남구 검은금동
14반 한동균 올림



웃음속에 사는 한동균가정

고향소식

등 불

지난 5월중순 우리는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살고있는 한춘진동포의 고향 황해남도 룡연군 룡연읍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

산기슭의 유연한 경사지에 다층살림집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룡연읍어귀에 들어서는 우리의 머리속에 지꿎게 갈마들며 떠나지 않는 한가지 생각이 있었다.

지난해 남미주에서 온 해외동포를 만나 취재하던 때에 있은 일이였다.

그때 그 동포는 무척 흥분해서 우리에게 고향방문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기자선생은 인간의 넋에 칭칭 감겨도는 적막감과 고독감에 몸부림을 쳐본 일이 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우리는 뜻밖의 질문에 그를 쳐다보았을뿐 얼른 대답을 못했었다.

그는 얼굴에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곡절많은 운명탓에 산설고 물설고 낯설은 이국의 황량한 광야에 흘러간 불행아들에게는 적막감과 고독감이 때아니게 엄습해오기 마련인데 그때 그것이 죽음처럼 무섭다는것은 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느낄수도 인정할수도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고통과 악몽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향, 조국에 대한 추억이며 흙을 씹어삼켜서라도 살아 다시 고향에 가리라는 마음의 다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그러한 의지와 희망도 없다면 이국의 가혹하고 무자비한 세파에 말려 무주고혼의 신세가 되고만다고 하였다.

고향, 우리는 오열로 떨리던 그 동포의 목소리를 되새기며 과연 고향이란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다져주고 샘물같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것일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심장의 등불로 생에 활력을 쉼없이 부어주는 그런것일가하고 우리나름의 생각을 더듬어갔다.

룡연읍의 중심은 형식이 새롭고 독특한 건물들이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솟아 거리의 이채를 돋구어주었다.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군문화회관이였다.

건물의 전면에 솟은 아름드리 기둥, 안정감을 주면서도 거뜬하게 보이는 채양, 보기에도 시원한 감을 주는 창문 그 모든것이 조화되여 품위있어보였다.

우리는 한춘진동포가 고향을 떠났던 해인 1943년 당시 룡연의 전경을 그려보기 위하여 읍의 년장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룡연땅에는 한채의 기와집도, 한뙈기의 과수밭도 없었다.

대륙침략에 혈안이 된 일제는 땅에서 걷어들인 낟알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략탈해가다 못해 나중에는 이고장 사람들이 부엌세간으로 대를 물려오던 놋식기, 놋저가락까지 빼앗아갔다.

메마른 황토먼지만 이리저리 밀려가던 룡연땅, 굶주림과 병마에 살점을 잃은 곡성만이 풀썩 꺼져든 초가막속에서 서글피 새여나오군하던 곳이였다.

젖먹이의 돐생일에 사과 한알을 쥐여주는것을 소원으로 여겨오던 이 고장 녀인들이 오늘은 2천 3백여 정보의 과원속에 묻혀 봄이면 꽃을 보며 웃고 가을이면 알알이 여문 과일을 보며 노래를 부른다.

해방전에는 소학교 하나 변변한것이 없던 이고장에 오늘은 농장대학까지 일떠서 군의 농업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술자들과 관리일군들을 키워낸다.

우리는 룡연군종합농장경영위원회 문화과 과장의 안내를 받아 농장대학을 돌아보았다.

중년의 문화과장은 농장대학의 우월성은 교육과 생산이 밀접히 결합된데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은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그 어느때나 농장포전이나 농기계작업소에 나가 실물로 다루며 관찰하고 연구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농장대학에는 작물학, 축산학, 과수학, 기계학, 관리운영학 등 여러 강좌들이 있어 군내 20여개의 분장들과 목장에 요구되는 기술자들과 관리일군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문화과장과 함께 군안의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보장하고있는 지방산업공장들도 돌아보았다.

참으로 룡연은 농업과 과수업, 축산업과 수산업, 지방공업이 고르롭게 발전하고있었다.

우리는 룡연땅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룡연땅에 생의 첫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이여, 그네들의 심장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새겨져있는 고향의 변모를 두고 쉽게 생각마시라.

이땅 한줌 흙에도 고향땅을 제 살점같이 아끼고 다루어오는 동향들의 지혜와 땀이 슴배여있거늘.

고향의 품에 다시 안기는 그날 무심히 이 땅을 밟지 마시라.

본사기자

룡연군의 일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6)

《조국의 하늘을 지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추격비행대는 《기술적우세》, 《공중우세》를 자랑하던 미제침략군비행대와의 공중전투에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적비행기들을 무리로 요정냈다.

부주제군상 《조국의 하늘을 지켜》는 조국의 하늘을 지켜 싸운 추격기의 비행사들과 기술근무성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해온 우리 공군무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추격기 《009》호에 몸을 싣고 추격명령을 기다리는 비행사의 얼굴에도, 비행기의 전투보장은 념려말라고 하며 총탄을 재우는 기술근무성원들의 얼굴에도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적비행기들에게 죽음을 안겨줄 굳센 결의가 뜨겁게 어려있다.

부주제군상 《조국의 하늘을 지켜》는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작품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나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폭넓게 그려보게 한다.

《조국의 바다를 지켜》

부주제군상 《조국의 바다를 지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바다, 주문진앞바다에서 어뢰정으로 적 중순양함 《빨찌모르》호를 격침시킨 우리 어뢰정대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펼쳐보이고있다.

사나운 격랑을 헤가르며 적함을 향하여 달리는 어뢰정에서 한손을 높이 들고 우뢰와 같은 함성으로 《발사!》 하고 웨치는 지휘관, 밀려드는 파도를 몸으로 막으며 적함에로 육박하는 기관총수와 무전수, 결사의 각오를 안고 돌진하는 해병들…

그때의 어뢰정번호 그대로 선체에 새겨진 《21》이라는 번호며 파도속에서 머리가 드러나있는 어뢰의 형상등은 세계의 해전력사에서 기록될 주문진해전의 한 장면을 그대로 련상케 한다.

어뢰정으로 적들이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중순양함을 쳐부시고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운 우리 해병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부주제군상 《조국의 바다를 지켜》는 오늘도 조국을 지켜 싸우려는 우리 인민군해병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부주제군상 《조국의 바다를 지켜》는 길이 9메터, 너비 3.3메터, 높이 6메터이다.



(38페지에서 계속)

사과 《북청》은 빛갈이 곱고 맛이 좋아 이 지방의 특산물로 알려졌으며 다른 나라에 수출도 된다.

우리는 새로운 주택지구와 거리들이 형성되고 곳곳에 공원들과 록지들이 꾸려져있는 북청읍에 자리잡고있는 과일가공공장에도 가보았다.

여기서는 북청지방에서 생산한 갖가지 과일로 통졸임, 단묵, 말린사과, 단물을 만들고있다.

원료의 투입과 선별, 가공을 거쳐 나오는 제품에 《북청사과》, 《북청배》 상표가 척척 붙어 포장되는 광경은 볼맛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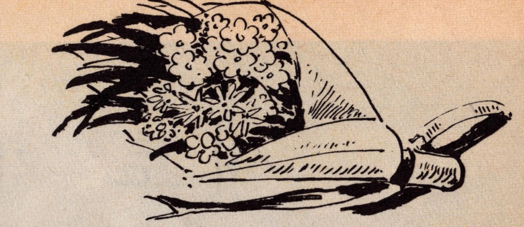
북청군에는 과수작업을 기계화할수 있는 기계와 설비를 생산하는 공장도 꾸려져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고성능분무기를 비롯하여 과일나무가지를 자르는 가위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계, 도구를 생산한다고 한다.

우리는 사과며 배, 여러가지 과일을 따들이는 풍요한 가을날에 다시 오라는 이고장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북청을 떠났다.

본사기자 조광열

기 쁜 일



평양시 대동강구역에는 귀여운 아기를 자애로운 품으로 어서 오라 두팔을 벌리고 부르는 어머니처럼 서있는듯한 사랑의 집이 있다. 이 집이 바로 우리 나라 녀성들이 《친정집》이라고 부르는 평양산원이다.

진달래꽃, 개나리꽃이 활짝 핀 지난 4월 어느날 평양산원에서는 경사가 났다. 이 집에서 태여난 네쌍둥이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한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기쁜일을 취재하기 위해 산원을 찾았다.

현란한 무리등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는 중앙홀의 보석주단을 밟으며 대리석층계를 올라 《삼태자과》라는 표식을 단 방에 이르렀다.

이 과에서 얼마나 많은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 태여났던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해빛이 유난히도 따사롭게 비쳐드는 애기방에 들어섰다.

퇴원준비를 하던 평안남도 숙천군 운정리진료소에서 의료일군으로 일하고있다는 어머니 김현희녀성은 조용히 웃으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네쌍둥이를 본 어머니의 기쁨이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물음에 그는 생각깊은 표정을 지으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저를 담당하여 극진히 치료해준 전인숙선생의 말부터 먼저 들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번에 현희녀성이 완쾌된 몸으로 추서고 네 아기들도 모두 정상산아들과 다름없는 좋은 발육상태를 가지고 퇴원하게 되니 의사로서 기쁨이 그지없습니다.》

전인숙선생이 이렇게 말머리를 떼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희녀성이 평양산원에 입원한것은 지난해 10월중순경이였다. 그는 입원기간에 해산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것은 물론이고 이미 가지고있던

평양산원에서 태여난 4태자



잡병까지도 고치게 되였다.

그는 입원기간 현대적인 여러가지 의료설비로 무려 320차에 걸치는 검진과 진단을 받았으며 매일 10여가지의 값진 약을 쓰는 등 산원의료일군들의 과학적인 치료와 온갖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았다.

또한 해산후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에 바쳐진 의료일군들의 정성과 값은 제쳐놓고라도 입원하여 해산할 때까지 50여일간에 투입된 진단비, 치료비, 약값등은 3만여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의 애기들에게 쓴 많고많은 약들과 영양제며 보약들, 사경에 처했던 애기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기울여준 의사와 간호원들의 그 지극한 정성과 고마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할수 있겠나요. …》

감동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현희녀성은 보육기에서 네쌍둥이들이 자라나던 이야기며 매 아이들에게 한명의 담당의사와 세명의 간호원이 붙고 건강이 좋지 못했던 셋째는 두명의 담당의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돌봐주었다는 이야기며 아이들이 태여난 그날부터 숙천군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일군들과 얼굴도 모르는 봉사일군들이 꽃포단과 애기옷들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야기들도 들려주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에게는 네쌍둥이들에게 차례지는 국가적인 보살핌과 혜택이 그렇듯 큰데 대하여 새삼스레 생각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 태여나는것이 나라의 경사로, 기쁜일로 되고있다.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졸인젖, 사탕가루, 담요, 내의류, 커서 시집장가갈 때 입을 첫날옷감과 은장도와 금반지까지 주며 학교에 갈 때까지는 국가자금으로 교육비가 지출된다.

그뿐이 아니다. 의사, 보육원, 간호원, 봉사부문 일군들이 전문적으로 그들을 담당하여 보살펴준다.

네쌍둥이어머니는 목메인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낳았다고 하여 어찌 제 아들들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온 나라의 관심속에서 자라는 저애들은 조국의 아들, 인민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우리 네아들들이 자라서 이 고마운 제도, 우리의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것을 바래서 〈조국보위〉라는 네글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성, 국성, 보성, 위성.》

우리는 꽃보라가 흩날리고 가지각색의 테프가 줄줄이 늘어선 산원정문을 지나 수많은 사람들의 바래움속에 떠나는 네쌍둥이의 복스러운 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보며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했다.

본사기자 채금옥

새로 개건된 왕건왕릉

올해 1월 31일 개성에서 고려태조 왕건의 생일 1,117돐을 계기로 개건한 왕건왕릉개건식이 진행되였다.

왕건은 고구려와 발해를 이어 918년에 우리 나라의 첫 독립국가인 고려를 세움으로써 475년동안 존재하면서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떨친 고려의 시조왕이다.

왕건의 무덤은 943년에 축조된후 고려시기에만도 외래침략자들에 의해 여러차례 파괴략탈당하고 리조봉건통치배들이 관리를 잘못한데다가 일제가 무참히 도굴한것으로 하여 크게 손상을 입었었다.

그런것을 이번에 새로 웅장하게 개건하였다.

릉문에서 봉분중심까지의 거리가 150메터로서 종심깊이 형성된 왕건왕릉은 크게 봉분구역, 제당구역, 릉문구역으로 구분되여있다. 봉분구역은 다시 제1단, 제2단, 제3단으로 구분되여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고려왕릉 꾸밈수법에 따르는것으로서 매 구역, 단들에는 해당한 부속물들과 조각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여있다.

봉분구역의 제1단에는 봉분이 있다. 봉분은 12각형의 평면에 따라 병풍석을 두르고 그 우에 흙무지를 쌓아 만든 무덤으로서 그의 평면에 외접하는 원의 직경은 19메터, 봉분의 높이는 9메터이다.

병풍돌을 이루고있는 면돌의 중심에는 구름무늬를 배경으로 12지신상이 부각되여있다. 12지신상은 모두 관복을 입고 홀을 쥐고있는 립상이다. 립상의 머리부분은 해당 방위에 맞게 쥐, 소, 범, 토끼, 룡, 뱀, 말, 원숭이, 닭, 개, 돼지 등 12가지의 짐승의 대가리를 형상하고있다.

봉분안에는 주검칸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주검칸은 남으로 약간 벌어진 외칸으로서 그의 남북길이가 348센치메터, 동서 길이가 330센치메터, 천정 높이가 220센치메터이다. 주검칸은 하나의 큰 판돌을 세워 벽을 만들고 그 우에 한단의 평행고임을 한 다음 3개의 판돌을 덮어 천정을 형성하였다. 남쪽벽면 중심에 무덤안길을 만들었다. 주검칸의 바닥에는 길이 268센치메터, 넓이 80센치메터, 높이 40센치메터의 관대가 있다. 관대의 좌우에는 껴묻거리대가 하나씩 놓여있다. 주검칸의 벽과 천정에는 우리 나라 중세미술발전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벽화들이 있다.

이번에 왕릉을 개건하면서 왕건릉에 그려진 벽화를 바깥공기의 영향과 온습도의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차단벽을 설치하였다.

제2단에는 중심에 돌등이 놓여있고 그를 중심으로 서쪽에 무관상 한쌍, 동쪽에 문관상 한쌍이 마주서있다. 제3단에는 무관상 한쌍과 문관상 한쌍이 배치되여있다. 이 조각들은 다 왕건의 건국위업을 성취하는데 공로있는 충신들을 형상한것이다.

제당구역에는 서쪽에 T자형의 평면을 가진 제당건물이 있다. 제당건물은 건축면적이 65.5평방메터, 내부면적이 42.8평방메터이며 그의 지붕은 배집지붕이다. 벽면에는 왕건의 실제 모습을 그린 초상을 비롯하여 고려의 건국력사를 보여주는 그림을 전시하였다. 제당건물내외부는 고려시기의 범단청으로 장식하여 건물의 사명이 두드러지게 하고 릉의 면모에서 시대상이 더 잘 표현되게 하였다. 제당구역 동쪽에는 2개의 비각이 나란히 서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1867년에 세운 기적비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묘비가 들어있다.

릉문구역에는 릉문이 있다. 릉문앞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친필을 새긴《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가 세워져있다.

릉문은 왕릉의 입구건물로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사방 다 개방한 대문채건물이다. 릉문의 기둥은 높이 120센치메터의 돌기둥에 나무기둥을 받쳐 세운 형식인데 가운데 기둥높이가 43센치메터이다.

릉문도 범단청으로 장식되여 밝고 우아하고 정교한 고려건축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있다.

왕건왕릉은 큰 부지에 종심깊이 형성되여 무덤으로서의 정숙한 분위기가 보장되였을뿐아니라 크고 웅장한 자태로 하여 첫 통일국가 고려의 건국시조릉으로서의 풍격을 훌륭히 갖추고있으며 건축형성에서 고려시기의 유적으로서의 독특한 정서가 잘 안겨오고있다.

왕릉앞에는 왕건왕릉개건공사를 친히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아로새긴 왕건왕릉개건기념비가 세워져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1992년 5월 5일 몸소 왕건왕릉을 찾으시고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를 창건한 왕건의 릉을 잘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고 새로 꾸릴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왕릉형성시안과 모형사판을 보아주시고 왕릉주변을 참관지, 유원지로 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왕건왕릉개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부지면적 2.5정보의 왕건왕릉은 3단축조형식으로 된 웅장한 왕릉으로서 형식에서 전형적인 고려왕릉의 면모를 원만히 갖추고 새로 훌륭히 개건되게 되였다.

개건된 왕건왕릉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귀중한 재보로서 우리 인민을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양하는데서와 우리 나라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광진

왕릉



《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



조각상《범》



릉문

왕건왕릉의 전경



문관조각상들



무관조각상들



개수기실비



개수기실비실





왕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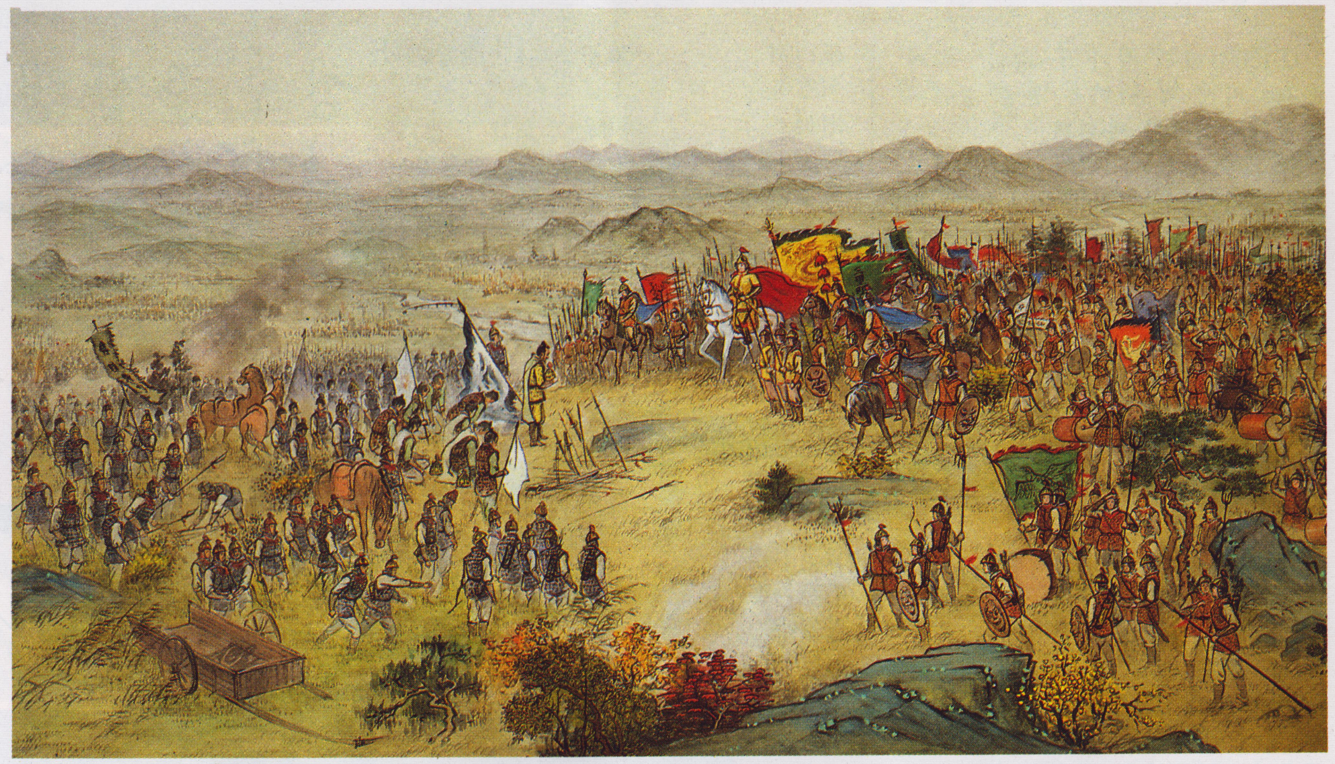


왕건왕릉을 참관하는 근로자들



제당

사진 김광진



왕릉에 있는 벽화 《백제가 고려에 항복하다》

조선특산

길주배



우리 나라 북부에 자리잡고있는 길주는 배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 지방에서 나는 배는 크고 살이 두껍고 연하므로 맛이 대단히 좋다.

배에는 사람들의 건강에 중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들어있다.

배에는 당분 7.0~15.7%, 단백질 0.4%, 기름 0.02%, 산 0.7~0.9% 등이 들어있다.

이밖에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량원소가 포함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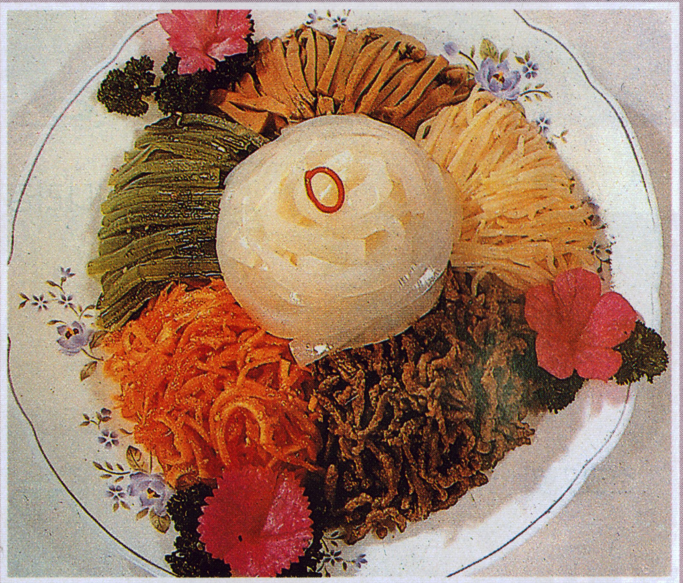
길주배는 생과일로 먹기도 하지만 통졸임, 단묵, 술 등 식료가공공업의 원료로 쓰인다.

늦가을에 저장고에 저장한 배는 이듬해 햇과일이 날 때까지 오래동안 저장해두면서 생과일로 먹을수 있다.

이 지방에서는 크고 맛좋은 배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산기슭 골짜기에 배나무를 많이 심고있다.

민족음식

청포종합랭채



도라지	50g
식초	5g
버섯	50g
오이 또는 쑥갓	50g
녹두나물	50g
닭고기	150g
해파리	50g
파	20g
마늘	5g
소금	2g
간장	5g
깨, 맛내기	각각1g
사탕가루	5g
겨자	5g
고추가루	1g
후추가루	0.5g
실고추	0.5g
녹두	30g

① 도라지는 길이 5~6cm, 두께 0.3cm 되게 찢은 다음 물을 갈아대면서 4시간동안 우린다.

② 물기를 찌운 다음 고추가루즙, 다진 파와 마늘, 사탕가루, 간장, 소금, 참기름, 식초, 참깨, 맛내기를 두고 고루 무친다.

③ 해파리는 물을 찌우고 98~100℃의 끓는 물에서 3~4분동안 데쳐 길이 4~5cm, 두께 0.2cm 되게 썰어 식힌 다음 파, 마늘, 사탕가루, 식초, 겨자장, 생강즙, 맛내기, 후추가루, 참깨, 기름으로 무친다.

④ 오이는 껍질을 벗기고 길이 5~6cm, 두께와 너비가 각각 0.3cm 되게 썰어 여러가지 양념에 무친다.

⑤ 버섯은 길이 5~6cm, 두께0.3cm 되게 찢어 130~150℃에서 3~5분동안 볶은 다음 식힌다.

⑥ 닭고기는 1시간정도 삶은 다음 뼈를 추리고 길이 5~6cm, 두께 0.4cm 되게 찢어 여러가지 양념에 무친다.

⑦ 녹두는 묵을 쑤어 길이 5~6cm, 너비 0.5cm, 두께 0.3cm 되게 썰어 소금, 기름, 맛내기를 두고 가볍게 무친다.

⑧ 도라지, 해파리, 오이, 닭고기, 버섯을 접시에 보기 좋게 담고 가운데 녹두묵을 놓은 다음 실고추로 고명한다.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활을 꺾어버린 왕자

고구려의 6대왕인 류리왕때에 있은 일이다.

나라의 수도가 국내성인 위나암성으로 옮겨간후(류리왕 22년에 옮김) 왕자 해명은 옛수도에 그냥 남아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있었다.

그가 부왕을 따라가지 않고 남은 리유는 군사들을더 잘 준비시켜 항시 고구려를 엿보고있는 이웃나라의 침략기도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해명은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풍채가 뛰여난 왕자였으며 지략과 용맹이 비범한데다가 성격이 또한 호방하여 젊은 무사들은 하나같이 그를 신뢰하고 따랐다. 그래서 해명은 소년시절에 벌써 부왕의 뒤를 이을 태자로 책봉되여있었다.

고구려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장차 그가 왕위에 오르면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리라고 여기면서 은근히 기뻐해마지 않았다.

어느날 이웃나라인 황룡국에서 왕이 보낸 사신이 해명을 찾아왔다.

그는 자기네 나라 왕이 고구려의 태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새로 만들었다는 매우 센 활을 한개 내놓았다.

장사같은 힘을 가진 무사라 할지라도 당겨내기 힘든 활이였다.

《선물》을 받아든 해명은 저으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활에 이웃나라 왕의 음흉한 속심이 뻔드름히 들여다보였기때문이다.

(흠… 내가 힘이 대체 얼마나 센지 시험해보자는 수작이군. 그리고 우리가 옛수도에 남아서 군사를 훈련시킨다 해도 새로운 무기를 갖추어나가는 자기네한텐 눌리울것이라는 위협이 아닌가.)

당시 해명의 뛰여난 힘과 용맹에 대한 소문은 이웃나라에도 퍼져있었다. 그래서 이웃나라 왕은 고구려와 그 왕자를 눌러놓을 심사로 사신에게 활을 들려보냈던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군사들은 이 활을 갖추고 용맹을 키우고있소이다. 헌데 고구려에서는 어떠하온지?》

해명의 짐작대로 이웃나라 사신이 거드름을 피우며 넌지시 물었다. 그러자 해명은 가볍게 코웃음치며 《귀국에는 이 활을 당겨낼만한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겠소이까?》 하고 되물었다.

무안을 당한 사신은 은근히 약이 올라 숨결이 거칠어졌다.

《그럼 태자께서는 능히 이 활을 당겨낼수 있겠소이까?》

《글쎄요.》

해명은 쓰겁게 웃더니 단숨에 활을 힘껏 당겨 뚝 꺾어버렸다.

순간 거만스럽게 굴던 사신의 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과시 소문대로 태자님의 용력이 대단하시오이다!》

《내 힘이 대단한것이 아니라 활이 변변치 못하오이다. 그런 활을 어데다 쓰겠소이까.》

해명은 부러진 활을 땅바닥에 던지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웃나라 사신은 얼굴이 붉어진채 더 말을 못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명의 부하 장수들은 통쾌감을 금치 못해했다.

모욕감을 느낀 사신은 그 길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웃나라 왕은 깜짝 놀라며 《뭐라고? 아니, 고구려의 태자가 단숨에 그 활을 당겨 꺾어버리더란말이냐?》하고 물었다.

《그렇나이다. 실로 일당천의 힘을 가진 장수인줄로 아뢰오.》

《저 고구려땅에 무서운 호랑이가 출림하고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고?…》

이웃나라 왕은 풀이 죽어 한숨만 깊이 내쉬였다.

《그것뿐이 아니오이다. 해명은 우리 황룡국의 속심을 알아차리고 마치 강아지를 본것만큼이나 우습게 여기더이다. 실로 지략과 용맹이 출중한 왕자로소이다.》

《글쎄 이런 수치가 어데 있느냐? 아, 지통한지고! 차라리 그 활을 보내지 말았어야 할걸 그랬구나!》

이웃나라 왕은 후회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때부터 해명의 용맹은 이웃나라에 더욱 널리 퍼져 그 나라 군사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다.

그러나 1년후 해명은 뜻하지 않은 일로 죽었다.

고구려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눈부신 흔적을 남길번 하였던 그가 그 비상한 슬기와 용맹을 묻어둔채 아깝게도 18살 꽃나이에 사라진것을 놓고 몹시 슬퍼하였다.



력사학박사 전준현

철산봉의 7형제

지난해 9월 4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운광직장 5운광대에서 대형자동차로 쇠돌을 나르고있는 표일석, 표근수, 표근일, 표근진, 표근산, 표근필, 표근철 일곱명의 운전사형제들이 올린 편지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감사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은 동지들과 같은 끌끌한 조국의 아들들의 의지와 신념에 받들려 부강발전할것입니다. 1993. 9.4. 김정일》

6년전에 정든 일터와 고장을 떠나 이곳 무산광산의 철산봉으로 달려온 20대, 30대 젊은 광부형제들.

평범하고 소박한 그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내린것이 무엇이기에 길지 않은 그 기간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사람들로 될수 있었는가.

새 고장으로

몇해전 8월초 어느날이였다.

평양—무산행렬차에서 내린 귀밑머리가 희끗한 표태복로인은 일곱아들을 앞세우고 무산의 역나들이문으로 나오고있었다.

하나와 같이 빠진데없이 끌끌한 자식들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는 로인의 마음은 후더웠다.

흔히 사람들은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자식들의 겉만 아닌 속도 낳았구나.

10년전 청진의 어느 한 건설사업소에서 일하던 태복로인은 뜻하지 않은 일로 자리에 눕게 되였다.

사업소일군들이 그를 데리고 도병원으로, 중앙병원으로 다니였다.

돈한푼 들이지 않고 척추대수술도 하고 값비싼 고가약도 물쓰듯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팽이를 짚고 바깥출입도 하게 되였다.

나라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사회보장혜택을 누리게 해주었다.

학교에 다니는 일곱이나 되는 아들들이 다른 애들과 똑같이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올망졸망한 자식들을 품에 안으며 목메인 소리로 늘 이렇게 말하군하였다.

《옛날같으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를 먹여 살리겠다고 너희들은 구두닦이통을 메거나 깡통을 차고 이집저집 동냥질을 다닐게다…참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냐!》

그때 자식들은 아버지의 음성이 왜 떨리고 눈굽에 물기가 도는지그 사연을 다는 몰랐다.

사업소일군들이 집에 찾아와 방바닥을 만져보며 굴뚝을 더 높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손걷고 나서 고쳐줄 때도 그저 고마운 아저씨들이라는 그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세월은 그들에게 키만 키워준것이 아니라 속도 키워주었다.

마음이 어질고 순박한 일곱형제들은 점차 자기들의 생활, 행복의 그 모든것을 조국이라는것과 련결시켜보게 되였고 조국의 품을 떠나서는 달리 살수 없고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일곱형제들이 무산광산에 오기 한해전 일이였다.

어느날 태복로인은 무산광산에서 일하는 둘째아들한테서 온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둘째는 편지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8월의 뙤약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네 광산을 찾아 철산봉에 오르시여 광산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는것이였다.

그날밤, 태복로인은 밤깊도록 잠들수 없었다.

《일곱자식을 데리고 무산으로 가자.》

밤새 모대기던 끝에 다진 단호한 결심이였다.

그러나 자식들의 의향이 어떨지 선뜻 용단을 내릴수 없는 그였다.

자기들의 희망대로 공장에서 일하는 자식들에게는 정든 자기들의 일터가 있지 않는가.

더우기 그애들은 이곳에서 태여나 자랐기에 고향산천과 다정한 이웃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과 아울러 이 땅을 꽃피우려는 소박한 꿈이 움터있다.

그러니 이곳을 쉽게 뜨려고 하겠는가.

아버지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다.

아버지의 곁에 모인 자식들은 은혜를 입으면 그에 보답할줄 아는게 사람의 도리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철산봉으로 가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뜻을 받들어가자고 나섰다.

아들들의 뜨거운 마음을 본 태복로인의 눈에 맑은것이 고여 번쩍이였다.

그리하여 태복로인과 그 일가는 철산봉에 뿌리를 내리게 되였으며 일곱아들은 희망대로 대형자동차의 운전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진심

오늘 표일석 7형제는 여기 철산봉마루를 주름잡으며 대형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쇠돌을 나르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매해 계획을 넘쳐수행하며 언제나 앞장에 서서 달리고있다.

하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축하를 받는 7형제운전사들

여기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다.

표일석 7형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린 편지에 이렇게 썼다.

《…

저희들이 다루는 대형자동차들은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집안의 가보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길이 전하는 국보중의 국보입니다.

…》

집안의 가보, 국보중의 국보.

표일석 7형제가 조국을 받드는 의지와 신념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차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집착되여있었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오전에 열다섯탕을 뛰여 하루계획을 150% 넘쳐수행할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된 넷째 근진이는 차를 과속으로 몰아 굽인돌이를 돌아섰다.

마침 자동차길을 돌아보던 첫째 일석은 손을 들어 차를 멈춰세우고 동생에게 무슨 운전을 그렇게 거칠게 하는가고 되게 꾸짖었다.

넷째는 오늘 계획을 초과수행하자니 어차피 차에 무리를 좀 준다고 천연스럽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속이 불뚝 일어선 일석은 동생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계획에 걸구 차를 혹사시켜…솔직히 말해라. 계획만 하면 그만이고 그것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떳떳하고 명예가 있게 된다는 그 비량심이…》

넷째는 눈길을 떨구었다.

《차에서 내려라. 그런 속통을 가지고 신성한 차의 운전대를 잡을수 없다. 이 차에는 우리 형제의 깨끗한 진심이 담겨져야 해!》

일석은 넷째의 팔을 잡아 운전칸에서 끌어내렸다.

그날밤 7형제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 어머니는 여태 너희들을 키우면서 궂은일 마른일에 크게 손을 적셔보지 못했다. 일곱자식을 키운다는게 말이 쉽지 먹고 입고 쓰고 산다는것이 간단하냐. 늦게나마 나라의 그 은혜에 보답해달라고 너희들을 떠밀어왔는데 넷째야, 네 일본새가 그게 무어냐?!》

넷째 근진은 어머니앞에, 형제들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판하고 용서를 빌었다.

흔히 범상히 스쳐보낼수도 있는 일에서도 형제들은 자그마한 타협도 없이 서로 충고를 주고 잘못을 고쳐나간다.

오늘 표일석 7형제들은 서로 교대별로 엄격한 검열관이 되여 자동차의 정비상태를 《판정》하고 인계인수하군한다.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수십가지의 수리공구가 들어있는 공구함과 예비부속함, 《절약창고함》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며 차의 도중점검과 교대점검을 정상화하고있다.

매주 목요일은 어머니와 안해, 온 집안이 떨쳐나서 차청소를 하고 길닦이를 하는 《가족정비의 날》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조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지와 신념에 받들려 무궁발전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조 광

《흰쌀밥》의 유래

밥은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의 하나로서 그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벼를 재배할 때 그 량이 적어 인민들은 그것을 먹을수 없었으며 왕만이 먹었다. 그런 의미에서 《왕밥》이라고 불리웠다.

《왕밥》은 그후 《리밥》으로 변했다.

그것은 리조왕조의 성씨인 리(李)자를 딴것이였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제놈들이 먹는 밥을 백성들이 먹는 밥과 엄격히 구별하고 《리밥》으로 부르게 하였던것이다.

세월의 흐름속에 《리밥》은 어음론적변화에 의해 《이밥》으로 되였다.

지난 시기 조선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나 《ㄴ》가 약화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이 있었다.

례컨대 로동자—《노동자》, 려관—《여관》, 녀성—《여성》 등…

조국이 광복된후 생산된 벼는 우리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차례지게 되였다.

비로소 인민들이 《이밥》을 먹게 되였던것이다.

언제나 인민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생각하시고 제일 좋은것을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쌀이 인민이 먹는것으로 되였기때문에 이제는 《이밥》이라고 하지 말고 《흰쌀밥》으로 바꾸어 부르라고 교시하시였다.

조국인민들이 매일 례사롭게 먹는 《흰쌀밥》은 이렇게 이름지어진것이다.

사회과학원 준박사 김인호

겨레의 지향

△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담화 발표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리동철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로씨야의 싸할린주에 살고있는 조선인들을 남조선에 강제이주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싸할린에 있는 동포들을 남조선에 강제이주시키려는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무슨 《인도주의》간판을 들고나온 사실을 규탄하였다.

그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떠나 이역땅 싸할린에서 살게 된것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목적을 위해 그들을 그곳으로 끌고가 마소와 같이 혹사한 끝에 그곳에 내버린 결과에 발생한 문제임을 상기시키였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이지 결코 단순한 《인도주의문제》로 둔갑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이전 쏘련령토에 사는 조선인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가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에 대해 우리 민족은 국제법적으로 일본당국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을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도주의》의 가면을 쓰고 싸할린주의 조선인들의 처지를 크게 《동정》하는듯이 소동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동포들을 유혹하여 로씨야의 원동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기지》를 꾸리고 민족내부에 적의의 씨를 뿌려 반목을 조성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남조선에 갔다온 모든 동포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은 이역땅에서 그곳으로 이주하는 동포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만한 아무런 정치적 및 경제적 담보가 없는 사회이다.

로씨야에서 살고있는 우리 조선인들은 이전 쏘련땅에서 살고있는 모든 조선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남조선에로 우리 동포들을 이주시키려는 기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의 민족적 존엄과 리익을 고수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지난 시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모든 죄행에 대하여 계산할것이며 일본정부당국자들에게 빌붙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민족반역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중남지구협회 성명 발표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중남지구협회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일본정부와 공모결탁하여 로씨야의 싸할린주에 있는 조선동포들을 기만, 회유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사람을 강제로 싸할린주에 끌어갔으며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 박해를 가하다가 내버렸기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고국산천을 떠나 지금까지 그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순수 인도주의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되는 동시에 국제적인권문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일본정부가 지난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에 대해 근 반세기가 되는 오늘까지 사죄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있는데도 그들과 한짝이 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적행동을 감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우리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같은 동포로서 남조선당국자들의 매국배족적책동과 정치사기협잡행위를 엄중시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로씨야 원동지구에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지반을 만들고 민족내부에 리간을 조장시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중남지구협회는 2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로씨야를 비롯한 이전 쏘련지역에 살고있는 전체 동포들이 그들의 반민족적책동에 절대로 속지 말고 지난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고수하여온 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나갈것을 기대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이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 대죄라는것을 명심하고 반민족적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일본당국자들도 여기에 한짝이 되여 같은 춤을 출것이 아니라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피해보상을 먼저 할 생각을 해야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본반동들이 끝내 저들의 비렬한 책동을 계속한다면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앞에서 커다란 수치와 참패를 당하게 되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물고기의 나이를 아는 방법—

물고기의 나이를 알자면 몸뚱아리에 있는 비늘을 떼서 해빛에 비쳐보면 쉽게 알수 있다. 나무의 나이를 알려면 년륜을 보고 알수 있는것처럼 물고기의 나이는 물고기의 비늘에 새겨진 둥근선을 보고 알수 있다.

물고기의 비늘을 해빛에 비쳐보면 성글게 돌아간 선과 배게 돌아간 선이 있는데 성글게 돌아간 선은 여름에 자란것이고 배게 돌아간 선은 겨울에 자란것이다.

그러므로 이 둥근선들이 몇번 어기여있는가를 보고 그 물고기의 나이를 정확히 알수 있다.

《변하지 않았구나!》

남조선잡지 《말》 1994년 2월호에는 남조선 한양대학교 교수 리영희가 쓴 글 《북미핵협상에서 〈남한정부〉가 배워야 할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요지를 본지에 요약전재한다.

북의 유격전적외교술

북의 《핵문제》를 놓고 북과 미국사이에 2년가까이 벌어지고있는 흥정을 보고있노라면 단연 《협상외교의 극치》라는 감탄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다.

40년가까운 세월을 국제관계분야를 관찰하고 공부해온 나이지만 이처럼 절묘한 국가간 협상은 처음이다.

북의 협상솜씨는 보기에 따라서는 마술사같기도 하다. 다음에 무슨 변화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것인지 예측할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협상의 각 국면이 매끈하게 이어져서 애초에 구상한 대로의 전체상을 다듬어나가는 외교기술은 조금 과장하면 가히 예술의 경지라고 할만하다. 그 자세 또한 당당하기 이를데 없다.

미국과 북의 핵협상외교는 두 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이 살아온 인생경험, 철학, 세계관, 정치감각을 그대로 표현하고있다. 미국의 협상전략은 그들의 만사가 그렇듯이 물량주의의 전면공격이다. 압도적인 물질적, 군사적 주먹의 힘으로 《녹아웃》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서 북의 대응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거 항일빨찌산전투에서 터득한 《유격전법》이다. 림기응변, 변화무쌍이라 할가 신축자재다.

…

자기 나라와 《한국》과의 외교에서 오래동안 입맛을 길들여온 미국의 정부당국자, 군인, 언론들은 《이것이 남한의 코리안과 같은 코리안인가?!》라고 어리둥절해하는 표정들이다.

우루과이라운드와 쌀시장개방 협상에서 《남한정부》와 국민의 손을 가볍게 비틀어버린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니 그럴만도 하다.

북미외교전의 제1회전 《푸에블로》호사건

지금 세계가 숨을 죽이고 손에 땀을 쥔 상태로 지켜보고있는 이북과 미국의 숨가쁜 협상외교는 말하자면 제2회전격이다. 제1회전은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이라는것이다.

《푸에블로》호는 일본의 모항에 기지를 둔 미국해군의 초고성능전파탐지용 스파이함정이다.

이 초비밀전자첩보선이 1968년 1월 23일에 원산앞바다에서 이북해군과 공군에 의해 나포된것이다.

배에는 함장을 비롯하여 도청용전자장치기술자, 암호해득전문가들인 군인과 민간인 합해서 83명이 있었다.

…

북이 주장하는 령해 12마일선이라도 그렇고 미국이 주장하는 6마일령해선을 잡아도 《푸에블로》호의 령해침범은 분명했다.…

《푸에블로》호사건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각오한 무력시위를 촉발했다. 죤슨대통령은 사건 첫날부터 핵항공모함 2척과 각종 함정 25척 합계 27척으로 구성되는 제77특별기동대함대를 편성하여 원산앞바다에 포진하고 군사적압력을 가했다. 전세계가 《제2의 한국전쟁》을 걱정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

작년에 《핵문제》를 놓고 미국이 취했던 대북군사공격위협은 이때의 군사공격결심에 비하면 아예 비교의 기준이 다르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전쟁의 공포에 떨었다.

원산앞바다에 특별기동함대를 대놓고 위협을 가하는 한편 미국은 쏘련을 비롯한 북의 동맹국가정부들을 총동원하여 정치외교적압력을 계속했다.

…이른바 《중쏘분쟁》으로 그 당시 호루쇼브 당서기장의 쏘련은 미국과 밀월관계에 있었다. 쏘련정부는 미국의 대리역할을 자청하여 각방면으로 이북정권에 압력을 가했던것이다. 미국의 청을 받아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뿐아니라 로므니아의 대통령까지 평양에 날아왔다. 미국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북은 정말로 쑥밭이 될것이라는 미국의 결심을 다시 전달하면서 온갖 설득노력을 다했다.

남《한》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세아지역국가들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있었다.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때의 긴장감을 두고 말하는것이였다.

…

미국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협박앞에서 이북정권이 저항의 표시를 하다가 웬만큼 체면을 세운 뒤에는 굴복할것으로 믿었다. 이런 경우에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의 의회, 시민, 언론들은 온통 전쟁열을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

미국은 미국과 남《한》과의 존재양식을 초강대 공산국가 쏘련과 북과의 존재양식으로 등식화했다. 즉 남《한》이 미국의 거의 괴뢰듯이 같은 코리아인 북도 틀림없이 초강대국 쏘련의 《괴뢰》정도로 믿었던것이다.

쏘련이 미국을 대신해서 압력을 가하기만 하면 북은 무릎을 꿇고

기여나와 나포한 첩보선과 미국시민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리라고 확신했다. 《한쪽의 코리안이 피뢰라면 다른쪽의 코리안도 피뢰지 별수 있는가?》, 이것이 미국의 이북관이였다.

미국이 그렇게 믿은 근거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미국으로서는 지극히 론리적인 결론이였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적공격의지를 뒤받침하는 쏘련의 온갖 종용과 설득, 압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과정을 신문사 외신부의 텔레타이프(자동전신타자기)에서 흘러나오는 외신기사의 두루마리를 확인하면서 바로 지금 1994년초에 《핵문제》를 놓고서 진행되는 북—미협상외교의 스릴보다 몇십배나 강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군했다. 《이럴수도 있는것인가?》, 이것이 나의 민족적긍지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감정을 한마디로 묶은 감탄사이다. 《같은 피줄을 이은 민족인데 한쪽은 이럴수도 있는것인가?》

텔레타이프에 찍혀나오는 모스크바발 기사를 읽던 감동

10개월이나 계속된 온갖 압력에도 끝내 굴복하지 않자 쏘련 공산당과 정부의 미국과 세계 앞에서의 체면은 말이 아니였다. 남《한》이 어쩌다 포항앞바다 령해에서 쏘련의 간첩선을 나포하고 쏘련극동함대가 인천앞바다에 정박하여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쏘련의 청탁을 받은 대북미합중국이 《당장 석방하라》는 압력을 10개월, 아니 한달만이라도 가해왔다고 가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날 쏘련외무장관이 모스크바주재 이북대사를 외무성으로 또 《호출》했다. 미국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쏘련외상의 호출요구는 그때마다 묵살됐다. 쏘련외무성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쏘련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따지기 위해서 외무차관이 직접 차를 몰고 이북대사관으로 달려갔다.

국제외교의 의전상 대쏘련외무차관이 몸소 대사관을 찾으면 북이 아니라 어느 나라 대사라도 적어도 대사가 건물현관에 나와서 영접하는것이 례의이다.

그날 이북대사관에는 대사이하 공사, 참사관 그리고 각 등급의 서기관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쏘련외무차관을 현관에서 영접한 사람은 대사도, 1등서기관도 아닌 서렬상 최하직의 외교관인 3등서기관이였다. …

이 현장묘사를 모스크바발 《에이에프피》통신기사로 텔레타이프에서 탁타탁 찍혀나오는 활자를 읽었던 그 순간의 나의 감정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간 지금에도 그대로 강렬하고 선명하다. 그 충격적감동이 나의 마음 깊은곳에 새겨넣은 민족적자부심의 흔적이 어찌 25년세월의 마멸작용으로 지워질수 있겠는가!

기계열로 달아있는 뜨거운 텔레타이프에서 흘러나오고있는 뜨끈뜨끈한 두루마리의 그 외신기사를 손에 든채 나는 또 한번 잠시 상상에 젖었다. 같은 상황에서 미국정부를 대표한 국무차관이 뉴욕주재 《남한대사관》현관에 몸소 나타났다면 어떠했을가? 그 상상의 결과에 나는 혐오를 느낀다. 25년전이다.

…

사건발생에서 석방까지의 11개월동안에 미국과 이북사이에는 28번의 비밀협상이 있었다. 협박과 군사공격위협, 쏘련을 비롯한 수많은 이북의 동맹국을 동원한 외교적방법의 회유와 설득노력 등이 모두 무효임이 립증되였다.

죤슨대통령이 검증해준 이북호칭

미국인이 석방되기전날 죤슨미국대통령은 미국정부가 11개월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조치들을 취해왔는가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텔레비죤특별프로에 나와서 낱낱이 설명했다. …

보고는 한시간 가까이 계속되였다. 텔레타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죤슨대통령의 대국민보고기사를 언제나 그랬듯이 기계앞에 선채 읽어나가던 나는 그의 결론부분에서 딱 멈추어버렸다. 순간 번개를 맞은것처럼 온몸이 저려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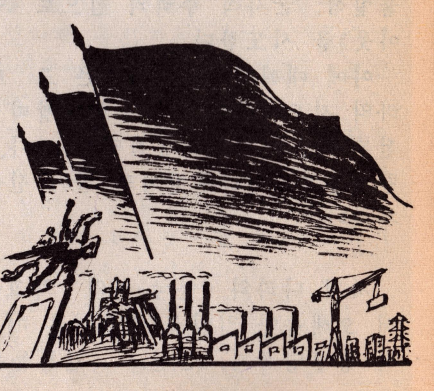
그것은 11개월동안 계속된 미국과 북의 마라손협상과정에서 내가 수없이 품었던 의문들을 단 한마디로 깨끗이 풀어주는 결론이였다. 죤슨 미국대통령의 긴 보고는 이렇게 매듭지어졌다. 그의 결론이 너무도 놀랍고 의외였던 까닭에 나는 그 표현을 한글자도 빠짐없이 지금도 기억하고있다. 결론은 한마디였다. 이렇게 짧았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쏘련의 압력이 먹어들어가지 않는 나라인것 같다.》

이 한마디에서 나는 북쪽 동포민족의 호칭을 고쳐쓰기 위한 힘겹고 의로운 싸움에 대한 정당성을 미국대통령에 의해서 검증받는 심정이였다. 그리고 북에 관한 많은 의문이 바람에 구름걷히듯이 풀리는것 같았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다. 지금 핵문제를 놓고서 전개되는 북과 미국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나는 가끔 혼자서 흐뭇하게 독백처럼 중얼거리군한다.

《그러면 그렇지. 변하지 않았구나! 그만하면 알만하다!》



위험계선에 이른 일본의 핵무장화

세계인민들은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선 일본의 핵무장화에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일본당국자들이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축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일본은 현재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 량을 훨씬 초과하는 26톤의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다. 이것이면 나가사끼형 원자폭탄 3,000개이상 만들수 있다. (일본잡지 《붕게이슌쥬》1992년 6월호)

일본은 1992년초부터 《대플루토니움리용계획》수행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극비밀리에 영국으로부터 1톤의 플루토니움을 들여왔으며 1993년에는 1.5톤의 플루토니움을 프랑스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일본에서 며칠전에 정상가동을 시작한 첫 고속증식원자로 《몬쥬》는 《2000년부터 전면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2010년까지 약 100톤의 플루토니움을, 앞으로 30년동안에 플루토니움 400톤을 확보하는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1992년 2월 13일)

1톤의 플루토니움으로 나가사끼형 원자탄 120개를 만들수 있다고 볼 때 플루토니움 400톤으로는 4만 8,000개의 원자탄을 만드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지구와 같은 수많은 행성을 순식간에 날려보내고도 남음이 있을 막대한 량이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이 2010년까지 약 100톤의 플루토니움을 확보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일본의 플루토니움수요량은 85톤으로 추정되고있는 사실이다. (교도통신 1992년 10월 5일)

이렇게 놓고보면 일본은 2010년에 가서 평화적목적을 위한 수요량보다 15톤의 플루토니움을 더 비축하는것으로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약 2,000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적당한 량의 플루토니움》을 저장하고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

미국방성이 유력자문기관에 위탁하여 종합한 플루토니움 등 핵물질의 확산방지에 관한 최신보고서는 일본의 핵무장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고속증식로의 실증로건설계획 중지 등 일본원자력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에 《2005년까지로 계획하고있는 12기의 플루토니움리용 원자력발전소건설의 규모 축소(2기로), 〈몬쥬〉에 뒤이은 신형실증로건설의 중지, 아오모리현의 록가쇼무라에 건설중인 제2재처리공장의 건설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정부의 내부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잠재적공포가 싹트고있다고 하였다. (일본 《마이니찌신붕》 1993년 11월 19일)

미국의 소리방송(1994년 4월 6일)은 일본에서의 고속증식로조업은 지금 주변나라들은 물론 구라파나라들과 미국에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주고있으며 격화된 핵문제에 더 큰 충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불원간 손꼽히는 최대의 핵무기보유국으로 전변될수 있음을 시사해주고있다고 하였다.

영국국방성이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플루토니움과 전자장치를 포함한 관건적인 폭탄제조 요소들과 기술을 가지고있으므로 급속히 핵무장화에로 나갈수 있으며 일본은 이미 원자탄을 만들었을수도 있다고 하였다. (영국신문 《썬데이타임스》1994년 1월 30일)

스웨리예신문 《스벤스카 다그불라데트》(1994년 1월 31일)는 《일본은…즉시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모든것을 소유하고있으며 필요한 량의 플루토니움만 넣으면 되는 핵탄두를 이미 만들어놓고있다》고 하였으며 스위스신문 《러 누보 꼬띠디앵》(1994년 1월 31일)은 《일본은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세계여론은 일본의 핵무장화가 조선반도와 세계비핵화의 주요한 장애로 되고있다고 크게 우려하면서 그것을 저지파탄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미국핵통제연구소 소장 폴 레벤탈은 1992년 1월 15일 상원외교위원회에서 한 증언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주요장애는 일본의 플루토니움 확보계획이라고 밝히고 그것을 저지시킬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하였다. (남조선문화방송 1992년 1월 16일)

네팔주간지 《드리스띠》(1993년 5월 13일)는 《국제원자력기구는 북조선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일본이 수많이 저축하고있는 플루토니움을 사찰해야 하며 유엔은 북조선이 아니라 일본과 같은 대상들을 당장 문제시해야 할것이다. 유엔과 미국이 적용하고있는 두개 기준정책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세계의 핵문제는 언제가도 해결될수 없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없을것이다》라고 하였다.

인도신문 《싸마챠르 포스트》(1992년 2월 19일)는 일본의 핵잠재력이 비단 조선민족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게도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응당 일본의 핵무장화시도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일본의 핵위협을 막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합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1992년 7월 9일)는 《일본의 군국화와 핵잠재력증대를 저지시키는것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로련과 까자흐스딴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진행

지난해 9월중순부터 11월초까지 로련의 지방도시 쎄르뿌호브시와 까자흐스딴공화국의 아크몰라주, 까라깐다주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전람회는 쎄르뿌호브시미술박물관과 아크몰라주미술박물관, 까라깐다주미술박물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전시되였다.

전시장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선집》을 비롯하여 1,200여종에 4,000여부의 도서들과 수예품《달밤의 기러기》, 《산주폭포》 등 120여종에 300여점의 수예품들, 《고려자기꽃병》을 비롯한 40여종에 80여점의 공예품들이 전시되였다. 《오늘의 조선》이라는 표제하에 우리 나라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40여장의 대형사진들도 전시되였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된 아크몰라주를 비롯하여 쎄르뿌호브시, 까라깐다주에서는 전람회개막식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람회장을 찾아왔다.

까라깐다주에서 진행된 전람회개막식때에는 주아쏘크위원장 김경호의 연설이 있은 다음 동포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합창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녀성독창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혼성합창 《아리랑》 등의 노래들이 울려나오고 《노들강변》, 《도라지》의 흥겨운 민요가락들이 흐르는가운데 조선치마저고리를 아름답게 차려입은 동포녀성들이 춤판을 벌려놓았다.

아크몰라주에서도 주아쏘크위원장 김 엘레나에따 알렉싼드로브나, 박물관 관장 박 왈렌찐 왈렌찌노위츠를 비롯하여 주의 아쏘크성원들과 수많은 동포들이 전람회장을 참관하였다.

로련과 까자흐스딴의 신문과 방송, 텔레비죤들은 전람회소식과 함께 우리 나라에 대한 소개를 광범히 진행하였다.

전람회가 열리는 지역들에서 조선출판물교류협회대표단은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회견에는 그곳에 있는 신문, 방송 부문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아크몰라주 일간신문 《아크몰린스까야 쁘라우다》는 10월 7일부 1면에 《맑은 아침의 나라 전람회》라는 제목으로, 10월 16일부 신문 3면에 《나는 산을 바라보고 산은 나를 쳐다본다…》라는 제목으로, 까라깐다주 일간신문 《인두쓰뜨리알리나야 까라깐다》는 10월 30일부 1면에 《맑은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제목으로, 11월 4일부 2면에 《아름다운 조화》라는 제목으로, 청년주간신문 《빠뜨니짜》는 11월 5일부 1면에 《비단새들이 다 날아간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갔다.》라는 제목으로 전람회소식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련 쎄르뿌호브시 주간신문 《쎄르뿌호브스끼예 웨스찌》 9월 25일부도 전람회소식을 전하였다.

신문들은 전시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읽어보면 조선의 발전모습을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수예품과 공예품, 도자기 등을 통하여 오랜 전통을 가진 조선의 문화예술적면모를 알게 될것이라고 썼다. 아크몰라주와 까라깐다주 텔레비죤은 전람회개막소식과 함께 전람회장참관정형에 대하여 방영하였다.

전시장을 돌아보고난 참관자들은 우리 나라의 발전모습에 깊은 주의를 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전람회를 자주 조직하여줄것을 요청하였다.

(37 폐지에서 계속)

숨이 활랑거리며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 오미자를 쓰면 심장활동이 강화되고 실피줄이 넓어져 혈압이 내려간다. 오미자는 반대로 낮은 혈압을 높여주어 정상수치로 되게 하는 작용도 한다.

이밖에도 오미자는 기침멎이와 가래삭임 작용, 균을 억누르는 작용이 있어 오미자차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마시면 건강에 여러모로 좋다.

특히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피로했을 때, 기침이 나고 숨이 찰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나고 목이 마르며 저절로 땀이 날 때, 밤오줌증, 설사, 심근쇠약, 저혈압과 고혈압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영양실조증이 있을 때 쓰면 효과를 볼수 있다.

오미자차를 만들려면 우선 말리워둔 오미자를 잘 골라서 씻어야 한다. 여기에 1.5배의 물을 두고 끓였다 식힌 다음 10시간이상 놓아두면 빨간 물이 우러난다. 이것을 천에 밭은 다음 사탕가루를 두고 다시 끓여마신다.

패궁정

패궁정은 량강도 혜산시 북쪽 압록강에 면한 절벽우에 있는 리조시기의 루정이다.

패궁정은 본래 혜산진성 남문의 문루였다. 혜산진성은 리조초에 쌓은 혜산보성을 1421년에 고쳐쌓고 리조말까지 진성으로 리용되였다. 성은 북쪽은 압록강과 그에 잇닿은 절벽이 막아서고 남쪽은 밋밋하게 비탈져 내려오다가 언덕을 이룬 자연적방어조건이 유리한곳에 자리잡고있는데 그 둘레는 약 750메터이다. 자연석을 다듬어 면을 맞추어 쌓은 돌성벽의 높이는 약 5메터로서 성벽우에는 성가퀴를 만들고 쏘는 구멍까지 냈다. 성문은 네면에 있었다. 이 네 성문가운데서 남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성안에서 필요되는 식량과 물자들을 모두 이 문으로 실어들였다. 남문은 큰길과 직접 잇닿아있어 적들이 흔히 노리는 대상으로 되였다.

혜산진성의 남문은 처음에 복융대라고 하였다. 복융대란 북으로부터 빈번히 침입하던 녀진인을 제압하여 복속시킨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복융대는 1631년에 다시 지으면서 이름도 패궁정이라고 고쳤다. 패궁정이란 이름은 옛날 이곳에 주둔한 군인들이 이 루정에 활을 걸어놓고 감시하다가 침입해오는 외적을 막았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패궁정은 혜산진성과 함께 그후 북방방위에서 큰 역할을 놀았다.

그런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혜산진성을 파괴하고 패궁정에도 불을 질렀다.

우리 인민은 1937년 타다남은 패궁정을 지금의 위치에 옮겨다 다시 세우고 보존해왔다.

패궁정은 정면 3간, 옆면 2간의 2층다락이다. 자연암반우에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긴 두리기둥을 세우고 지붕받침은 간소한 단익공두공으로 하고 합각지붕을 얹었다. 2층에는 널마루를 깔고 그 둘레에는 란간시설을 하여 압록강을 바라볼수 있게 하였다.

오늘 패궁정은 옛모습대로 잘 보존관리되여 우리 인민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하고있다.



